

우리, 누구나학교 스토리북
누구나학교
에서 노자
러





우리, 누구나학교 스토리북
누구나학교
에서 **노자**
리

LEARN'S 누구나학교!

시작은 이랬다.

누구나학교가 1년 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자료집 하나 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자료집. 그렇다면, 누구나학교의 자료집은 어때야 할까? 누구나 학교다운 자료집은 뭘까? 아니, 누구나학교답다는 건 뭘까?

그래, 누구나학교에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성과자료집과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북을 만들자! 누가 만들지? 사무실의 실무자? 아니다. 누구나학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들어야 진짜다. 여기까지 생각에 미치자 부랴부랴 기획단을 꾸리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누구나학교에서 놀자 기획단'. 그동안 누구나학교를 지켜보고 참여하며 응원해준 사람을 모았다. 누구나학교에서 <시와 함께하는 목요일>, <빙그레 꽃뜨래 북유럽 코바느질> 수업을 했던 '천상여자' 이소영과 <청소년 진로캠프>와 <초등맘 브런치에듀>를 진행했던 '쾌활순수' 권지현, 그리고 누구나학교의 담당자 '리블리' 박은미와 누구나학교 코디네이터 '터지는 웃음보' 오은숙이 뭉쳤다.

2012년 3월부터 누구나학교 이야기를 담기 위해 사람 만나기, 기억 살리기, 글 부탁하기, 자료정리하기로 기획단은 분주해졌다.

그리고 나온 네 가지 키워드 시작, 사람, 성장, 마을.

첫 번째 이야기: 시작 누구나학교가 무엇인지, 왓차지곶했던 누구나학교의 시간들, 그리고 누구나학교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로 시작을 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람 누구나학교에서 가르치며 배우는 사람,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직접 글을 써주신 분도 있었고, 기획단이 인터뷰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학교에서 느끼고 배우고 공감한 이야기를 펼쳐냈다.

세 번째 이야기: 성장 시민참여를 넘어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는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모으고 소개한 <심포지엄>, 더 많은 사람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공원에서 펼치는 <시민캠페인>, 어디서나 누구나학교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고등학생들 안에 있는 작은 재능을 캐내어 썸으로 데뷔 하도록 돕는 <누구나썸>의 이야기 등을 담았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을 누구나학교와 마을이 만나다. 학습마을 코디네이터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난 가르칠 게 없는데...하며 수줍어하던 이웃들이 모여 숨겨둔 지혜와 경험의 보따리를 펼쳐 내는 마을 배움터의 이야기를 모았다.

그동안 눈으로 보이지 않던 누구나학교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활자화되어 나오니 설렌다. 사람 향기 나는 소소한 누구나학교의 이야기가 잘 담겼는지 떨린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 갈 누구나학교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된다.

자, 이제 우리 누구나학교에서 놀자!

2013년 12월 어느날
누구나학교에서 놀자 기획단

Contents

목차

여는글 004

첫 번째 이야기 : 010

누구나학교,
시작

018

026

01. 누구나학교를 소개합니다

02. 왓지떨 놀이 누구나학교의 시간

03. 누구나학교를 응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 032

누구나학교,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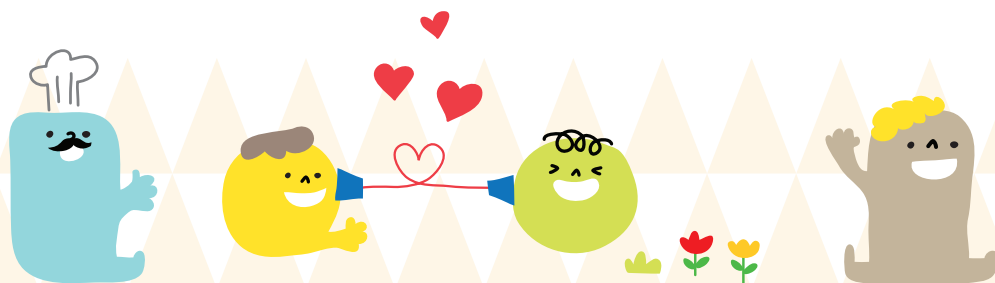
068

072

01. 우리 이제 누구나학교 사람

02. 누구나학교는 수업 중!

03. 수업스케치 : 두렵지 않은 첫걸음



세 번째 이야기 :

누구나학교, 성장

- 088 01. 심포지엄 ‘시민제작 일상학습’
- 096 02. 누구나학교 시민캠페인
- 102 03.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 오프너
- 110 04. 누구나쌤 : 원한다면 누구라도 “쌤”

네 번째 이야기 :

누구나학교, 마을

- 121 01.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 128 02.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 138 03.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 148 04. 능실 누구나학습마을
- 158 05. 코디네이터 그들의 이야기

편집후기

172



첫 번째 이야기

누구나학교, 시작

누구나학교가 무엇인지,
왁자지껄했던 누구나학교의 시간들,
그리고 누구나학교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로 시작을 열었다.

- 010 01. 누구나학교를 소개합니다
- 018 02. 왁자지껄 누구나학교의 시간
- 026 03. 누구나학교를 응원합니다





안녕

누구나학교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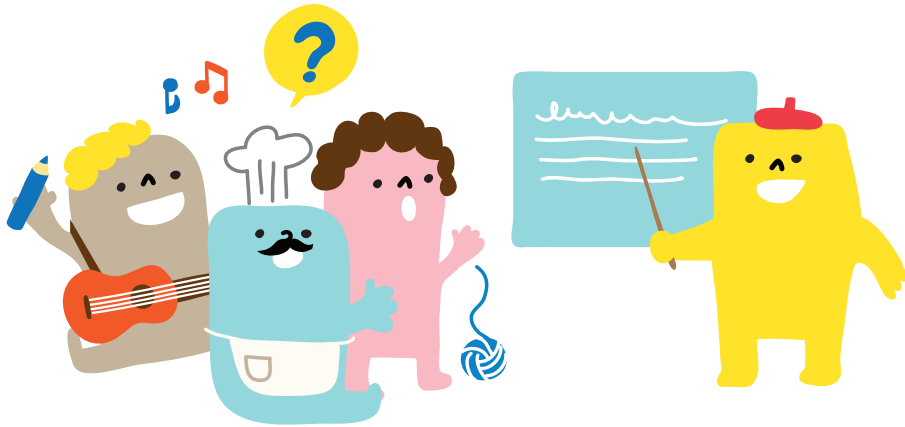


누구나학교는

지식·재능·경험·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 누구나 강의를 열고

배움의 기회를 갖고 싶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우는 시민주도 평생학습입니다.



누구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은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경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 강의의 소재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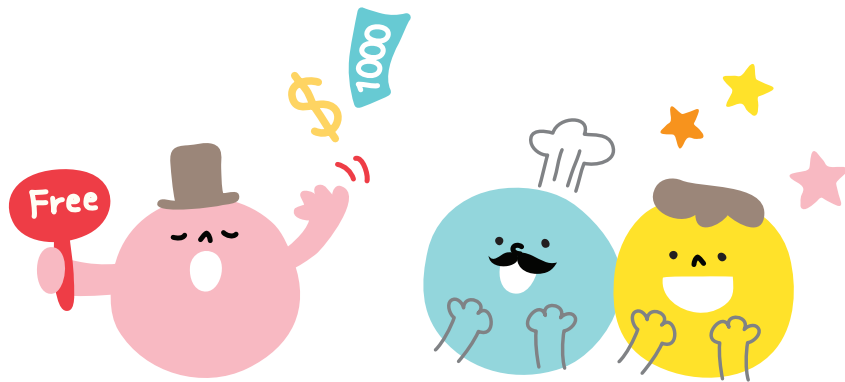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은
학원에서, 학습기관에서 가르치지 않는 작은 주제들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지식·재능·소소한 일상·경험·재미 등
모든 주제가 강의가 됩니다.

※ 종교·정당·영리·과외 등의 목적은 제외됩니다.



가르침, 배움이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시 점검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배움, 비용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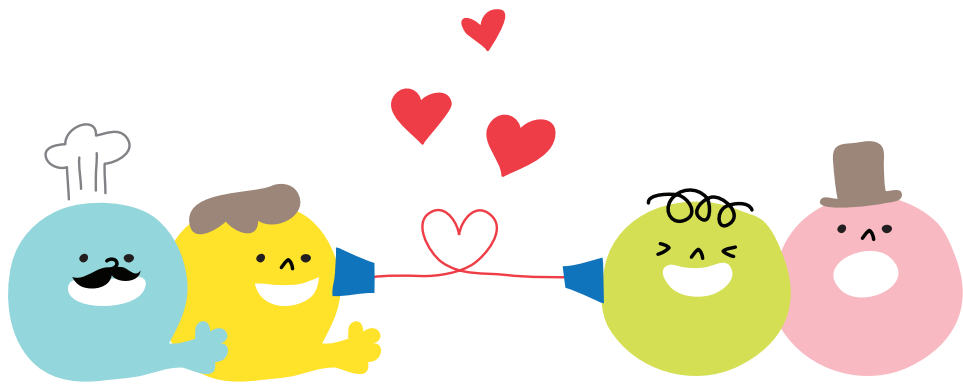
배우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비용 지불 없이도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방법, 자유롭게 다양합니다.

잘 만들어진 교재·멋진 파워포인트·세련된 말씀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에 따라
배움의 방식도 자유롭게 다양합니다.



사람, 사람을 연결합니다.

많은 배움이 지식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02.

웁자지깁걸

누구나학교의 시간

누구나학교는 2012년 3월에 시작하여 2013년 12월까지 305개의 강의가 만들어 졌고, 진행 횟수로는 687회, 참여인원은 2,687명(누계 7,179명)이 참여하였다.

강의뿐만 아니라 간담회, 네트워크파티,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심포지엄 등 누구나학교의 지속적인 도전과 실험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우리들의 웁자지깁걸 시간은 계속될 것이다.

2012.06

- 종이선생님의 '행복한 비누 만들기'
- 종이선생님의 '엣그림 담은 에코백 만들기'
- 꽃갑자와 오미자화채 만들기
- 아름다운 한복예절
- 요리아줌마의 '채소, 과일과 놀아보자'
- 공예강사의 클레이아트 자동차 만들기
- 공예강사의 클레이아트 꽃바구니 만들기
- 얼굴로 풀어보는 건강 이야기
- 부동산 경매 첫 걸음
- 평일 저녁 명상시간
- 100세 대비 가정재무 노하우
- 시와 함께하는 목요일
- 감정리더십코칭 교실 1기
- 웃지 않고는 못베기는 '신나는화요일'
- 성인을 위한 교통안전상식
- 토요일 명상시간

2012.03.21
누구나학교 강사 모집 시작

2012.03.29
누구나학교 간담회 진행 (24명)

2012.05.17
누구나학교 1차 네트워크파티 개최 (32명)

2012.05
누구나학교 온라인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2012.06
누구나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작 (27개)



칭의력 쑥쑥 나도 발명왕 1기
 청소년 진로 캠프 '나의 꿈, 나의 미래 1기'
 애국가로 배우는 한자
 귀여운 손저에게 문자해볼까요?
 독서코치님의 창조성을 깨우는 글쓰기 1기
 커피향 가득 통기타 교실 1기
 옆집아줌마가 들려주는 미수다' 그림으로 읽는 성서 1기'
 휴지기와 도예체험 1기
 광고산 '꽃밭가득'하우스 대표의 화분 키우기
 사회적기업 따로사랑과 함께하는 천일염 두부 만들기 1기
 오십견 예방 한국무용 1기

2012.07

보이스 트레이닝
 임상영양사의 키가 쑥쑥 몸이 튼튼 영양 강의
 댄스댄스와 포크댄스 1기
 버츰카드로 만나는 나

독서코치님의 창조성을 깨우는 글쓰기 2기
 창의력을 키워주는 독서 코칭
 가아금 배우기 1기
 오키리나 배우기 1기
 꿈지락뱀의 어린이 요리 교실
 사회적기업 따로사랑과 함께하는 천일염 두부 만들기 2기
 옆집아줌마가 들려주는 미수다' 그림으로 읽는 성서 2기
 오십견 예방 한국무용 2기
 청소년 진로 캠프 '나의 꿈, 나의 미래 2기'
 감정리더십코칭 교실 2기
 커피향 가득 통기타 교실 2기

2012.08

오십견 예방 한국무용 3기
 휴지기와 도예체험 2기
 공예강사 임화신의 우드아트

공예강사의 종이접기
 공예강사의 클레이
 생생놀이의 전통놀이 마당
 웃음과 행복 레크리에이션
 오키리나 배우기 2기
 가아금 배우기 2기
 독서코치님의 창조성을 깨우는 글쓰기 3기
 웃음치료와 경락체조
 반달샘의 미술 여행
 고등학생이 알려주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배우기 1기
 감정리더십코칭 교실 3기
 댄스댄스와 포크댄스 2기

2012.09

SNS로 접음과 소통하기 1기
 리본아트
 커피향 가득 통기타 교실 3기

2012.06.04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수원지역자활센터 화초사업단 (7명)

2012.06.11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수원지역자활센터 도예사업단 1기 (8명)

2012.08.13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수원지역자활센터 도예사업단 2기 (9명)

2012.10
 시민조차도 평생학습 사례집
 '다른 학습은 가능하다. 발간 (800권 제작)

2012.12.26
 누구나학교 2차 네트워크파티 개최 (38명)

사물놀이와 강강술래
 서예로 익히는 사자성어
 독서코치님의 창조성을 깨우는 글쓰기 4기
 창의력 쑥쑥 나도 발명왕 2기
 폼지락섬의 송편 만들기
 아티스트웨이 1기
 누비니퀼트동아리의 퀼트미니등전지갑 만들기

2012.10

오십견 예방 한국무용 4기
 가야금 배우기 3기
 오키리나 배우기 3기
 SNS로 젊음과 소통하기 2기
 독서코치님의 창조적 글쓰기 5기
 엄마표 생활영어 1기

리본아트
 폼지락섬의 가래떡과 꽃바람떡

2012.11

오십견 예방 한국무용 5기
 가야금 배우기 4기
 오키리나 배우기 4기
 SNS로 젊음과 소통하기 3기
 엄마표 생활영어 2기
 웃음이 있는 이야기상담
 자기주도학습으로 현명한 엄마되기
 아티스트웨이 2기
 독서코치님의 창조적 글쓰기 6기
 펠트공예와 함께하는 수원이야기
 허리디스크 예방과 치료법 1기

2012.12

오십견 예방 한국무용 6기
 가야금 배우기 5기
 오키리나 배우기 5기
 SNS로 젊음과 소통하기 4기
 정관장의 사진 보정
 그림책으로 상상력 키우기
 새해 설계 워크숍
 커피향 가득 통기타 교실 4기
 사물놀이와 우리문화 1기
 공예강사의 종이크리스마스트리 접기
 크리스마스종이눈꽃 만들기

2013.01.10-11
 청소년 강사 발굴 프로그램:
 누구나랩 1기 운영 (22명/6시간)

2013.03.26
 누구나학교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1기 운영 (13명 수료)

2013.03.28
 누구나학교 설명회:
 경기도 오산시 혁신교육 시민모임 (150명)

2013.04.18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오픈파트너
 영동종합사회복지관 (30명)

2013.04.25
 시민주도평생학습 심포지엄
 '시민제작 일상학습' 개최 (330명)



2013.01

살아 숨쉬는 단소 1기
 누비회화장 써니쌤의 퀼트소품 만들기
 사물놀이와 우리문화 2기
 내가 만든 한지인형
 이웃집아티스트의 코바늘로 뜨는 털실코사지
 오십견 예방 한국무용 7기
 가야금 배우기 6기
 오키리나 배우기 6기
 핸드워머장갑뜨기
 지식채널e 새로운 세상보기 1
 창의력 쑥쑥 나도 발명왕 2기
 릴레이핸드워머장갑뜨기
 지식채널e 새로운 세상보기 2

고등학생이 알려주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배우기 2기
 무릎관절 예방과 치료법

2013.02

맷돌댄스와 포크댄스 3기
 오십견 예방 한국무용 8기
 가야금 배우기 7기
 오키리나 배우기 7기
 자아찾기 내비게이터 소리쌤의 자기발견 프로젝트
 살아 숨쉬는 단소 2기
 집에그린 은속쌤의 식물 1탄 수분
 사물놀이와 우리문화 3기
 여고생 민경이의 진짜 재미난 미술사 여행
 예비기자 현주와 어린이NE
 아로마테라피
 프레지 맛만보기
 힐링미술치료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는 퇴행성관절염 알기
 이웃집아티스트의 졸업맞이 꽃다발 만들기
 창의력 쑥쑥 나도 발명왕 2기
 수제초콜릿 만들기
 지식채널e 새로운 세상보기 3
 이웃집아티스트 미애쌤의 코바늘삼각스카프
 장학생의 공부법

2013.03

부모교육
 엄마의 힐링스쿨
 생활 글쓰기 1기
 언어치료사의 우리아이 언어습득과 발달
 오십견 예방 한국무용 9기
 가야금 배우기 8기

2013. 04. 25
 「시민제작 일상학습 심포지엄 자료집 발간 (500권 제작)」

2013. 04. 25
 시민주도평생학습 사례집 「교육 경계를 허물다」 발간 (800권 제작)」

2013. 04. 30
 주민자치센터 대상 누구나학습마을 설명회 진행 (131명)

2013. 05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 누구나학습마을

2013. 05
 누구나학교 온라인 종합 정보 시스템 개편

2013. 05. 02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누구나학교」 사례집 발간 (1,328회 다운로드)



오카리나 배우기 8기
 미경쌤의 댄스포크댄스 1기
 사물놀이와 우리문화 4기
 살아 숨쉬는 단소 3기
 안나카레이나 맛있게 읽기
 스마트폰으로 젊어지기 4기
 에니어그램으로 나찾기 1기
 도시농부의 페트병수경재배기 만들기
 영국문화 들여다보기
 바느질헤어약세사리 만들기
 서예작가 용희쌤의 서각놀이 교실 1기
 집에그린 은숙쌤의 식물 2탄 토양
 이로운 부동산 상식사전 1기
 3월 수요일 착한가정경제멘토
 상상하고 배우는 여행 '공정여행'
 커피향 가득 통기타 교실 5기

송사마의 시부아대학 배우기
 내성격만 알면 행복해진다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커피 1기

2013.04

오십견 예방 한국무용 10기
 생활 글쓰기 2기
 가아금 배우기 9기
 오카리나 배우기 9기
 보험군산배기비법전수
 사물놀이와 우리문화 5기
 지영쌤의 수남정리 컨설팅
 살아 숨쉬는 단소 4기
 서예작가 용희쌤의 서각놀이 교실 2기
 미경쌤의 댄스포크댄스 2기
 4월 수요일 착한가정 경제멘토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커피 2기
 파워포인트로 명함 만들기
 상상하고 배우는 여행 '공정여행'
 에니어그램으로 나 찾기 2기
 4월 취업상담서비스
 집에그린 은숙쌤의 식물 3탄 광상추 심기
 미애쌤의 이미지케이션
 화성 함께 걸어요 1기
 함께 크는 마을 만들기
 이로운 부동산 상식사전 2기
 스마트폰으로 젊어지기 5기
 문학소녀 소리쌤의 소나기마을 문학가행
 미국문화 들여다보기

2013.05

기타코드 마스터하기
 오카리나 배우기 10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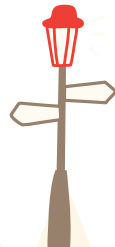
2013. 05. 08
 누구나학교 설명회: 경기도 고양시
 학습코디네이터 워크숍 (20명)

2013. 06
 누구나학교 이공상담실 운영 시작:
 영통도서관

2013. 06. 08
 시민캠페인: 누구나학교 응원전 개최
 (시민강사: 40명 / 참석자: 210명)

2013. 06. 17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영통중합시회복지관

2013. 06. 18
 누구나학습마을 선정 (4개 마을)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커피 3기
 사랑의 꽃바구니 만들기
 살아 숨쉬는 단소 5기
 5월 취업상담서비스
 나도 앤디워홀처럼! '팝아트'로 그리는 자화상
 커피향 가득 통기타 교실 6기
 미경쟁의 댄스포크댄스 3기
 5월 보혈다이어트비법 전수
 Melting Pot 2050 세대공감
 5월 수요일 착한가정 경제멘토
 가야금 배우기 10기
 사물놀이 휘몰이장단
 화성 함께 걸어요 2기
 카네이션코사지 만들기
 연을 쫓는 아이 영화 토론하기

스승의날 꽃상자 만들기
 미진의 배낭여행 기획 방법
 잘 알려진 OST 함께 부르기
 생활 글쓰기 3기
 화성 함께 걸어요 3기
 타로카드 입문상식 익히기

2013.06

살아있는 귀농 귀촌 교육
 동물애호가의 애견 공원 에티켓
 역사학자 민석공원 투어
 교육예술가의 집 이야기
 양훈도의 시 함께 나누기

에너지그램으로 나 찾기 3기
 정관장의 클래식 산책
 오키리나 배우기 11기
 6월 수요일 착한가정 경제멘토
 살아 숨쉬는 단소 6기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커피 4기
 가야금 배우기 11기
 우리동네에서 공적여행하기
 집에그린 은수쌤의 식물 4탄 새싹채소
 생활 글쓰기 4기
 패러디그림책으로 상상여행
 여름철 모기퇴치용품 만들기
 함께 신문 분석하며 토론하기

2013.06.19
 누구나학교 설명회: 경기도 군포시
 동아리 대표자 워크숍 (30명)

2013.06.26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013.07
 누구나학교
 이통상담실 1개소 확대: 북수원도서관

2013.07.02-08.09
 화성마을 코디네이터
 트레이닝 과정 진행 (8회/7명/39시간)

2013.07.03
 누구나학교
 재능기부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50명)

2013.07.09
 누구나학교
 화성마을 관게자 간담회 진행
 (30명)

2013.07

수원에서 협동조합 만들기 한걸음
 칼라민비누와 알로에크림
 에니어그램으로 나 찾기 4기
 커피향 가득 통기타 교실 7기
 가이금 배우기 12기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커피 5기
 오키리나 배우기 12기
 살아 숨쉬는 단소 7기
 7월 수요일 착한가정 경제멘토
 인생학교 사랑, 성, 욕망
 여름철 천연용품 만들기
 신나는 어린이 요리시간
 시인의 동시 놀이터 1기
 함께 꾸는 꿈 천 개의 직업

2013.08

많이 웃으면 공부도 잘한다
 러시아어 완전 첫걸음
 캠핑의 세계로 풍덩
 누비니화장 써니샘의 켈트소품 만들기
 음악을 통해 인문학 바라보기
 커피향 가득 통기타 교실 8기
 책 읽고 생각 나누기
 가이금 배우기 13기
 오키리나 배우기 13기
 살아 숨쉬는 단소 8기
 수원에서 협동조합 만들기 한걸음
 불타는 금요일 뭐하고 놀까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커피 6기
 재미있는 현대 미술
 터키 소개와 배낭여행 방법
 8월 수요일 착한가정 경제멘토

2013.09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방법
 포천선생님의 삼국지연의 중국어 강독
 테라리움다육식물 심기
 9월 수요일 착한가정 경제멘토
 아름다운 행궁동 골목길 투어
 에니어그램으로 나 찾기 5기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커피 7기

2013.10

만사가 풀리는 리듬타기 대화
 휴식기와 도예체험 3기
 쉽고 재미난 동영상 만들기
 304워킹맘들의 이야기
 정관장의 클래식 산책

2013. 07. 10
 누구나학교 설명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40명)

2013. 07. 24
 누구나학교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2기 운영 (17명 수료)

2013. 07. 24
 「해의 평생교육 사례」
 사례집 발간 (1,074회 다운로드)

2013. 07. 24
 누구나학교 설명회: 경기도 남양주 학습동대
 재능나눔 강사 워크숍 (170명)

2013. 07. 25-26
 청소년 강사 발굴 프로그램:
 누구나샘 2기 운영 (27명/6시간)

커피향 가득 통기타 교실 9기
수남의 달인에게 배우는 깔끔한 냉장고 정리 수납법
힐링미술치료
10월 수요일 착한가정 경제멘토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커피 8기
환절기 바디크림과 립밤 만들기
세계문화시리즈 1탄 태국

2013.11

시인의 통시 놀이터 2기
초등맘 우리들의 브런치에듀 1
가을철 나만의 메이크업 실전
도시농부의 다육이 한번 키워봅시다
누구나 한번쯤 만들고 싶은 썬트상품
커피향 가득 통기타 교실 10기
천연클렌징오일 만들기

다시 돌아온 맷돌과 포크댄스
꽃토틀이로 복유럽 코바느질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커피 9기
11월 수요일 착한가정 경제멘토
영상으로 만드는 인생 자서전
실스크린에코백과 티셔츠
도전 재봉을 사용법 배우기
역사학자의 의류를 통해 본 화성
세월간이보고 이야기 나누기

2013.12

조직을 빛나게 하는 리더십
그림책 읽기

퀼트 크리스마스별이 되다
커피향 가득 통기타 교실 11기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커피 10기
릴레이핸드워머장갑 뜨기
화장실 인문학 다시 읽어보기
초등맘 우리들의 브런치에듀 2
12월 수요일 착한가정 경제멘토
귀농을 생각하는 당신에게
2014년 감사일기 함께 쓰기
빨질 윤나는 풋크림 만들기
에니어그램으로 나 찾기 6기
저렴이 화장품으로 갯잎부터
2014 비전 여행 세우기
퀼트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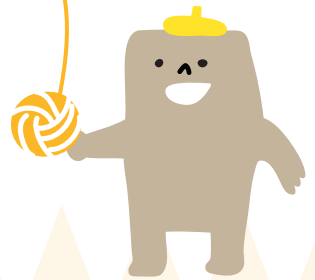
2013. 08. 08
누구나학교 설명회:
전라남도 여수시 미술리더교육 (40명)

2013. 08. 23-29
누구나학습마을
(농실마을, 화서1동, 매탄4동)
여는마당 및 합약식 진행

2013. 09. 03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버드네노인복지관 합약식 및 오픈마티

2013. 10. 17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사업부문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2013. 11. 07
누구나학습마을
여는마당 및 합약식 진행 (조원1동)



03.

누구나학교를 응원합니다

01



02



03



04



05



06



- 01 손채수_언제나응원단
- 02 강다연
- 03 박원순_서울시장
- 04 경희대_휴머니티스킬리지 학생들
- 05 정이슬
- 06 남장우_수원시 교육청소년과 과장

- 07 최윤실_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 08 이선희
- 09 학습마을 코디네이터 및 김성학
- 10 희망제작소_교육센터
- 11 고등학생_누구나샘 1기



- 01 경기대학교 청소년교육과 학생들
- 02 권용찬
- 03 oo은대학연구소
- 04 경희대학교_강설인·김자우·김진아·황우준·이진우·송대현
- 05 윤필영_연제나응원단



- 06 이미경
- 07 양훈도_언제나응원단장
- 08 이근철
- 09 송주희
- 10 정민승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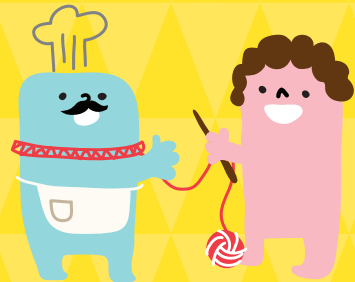


두 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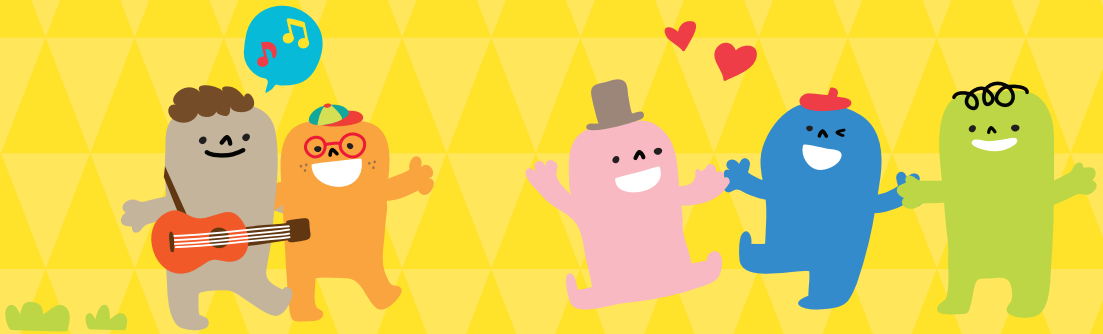
누구나학교,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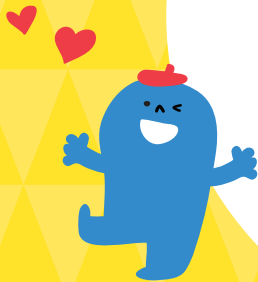
누구나학교에서 가르치며 배우는 사람,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직접 글을 써 주시는 분도 있었고, 기획단의 인터뷰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학교에서 느끼고 배우고 공감한 이야기를 펼쳐 냈다.

- 032 01. 우린 이제 누구나학교 사람
- 068 02. 누구나학교는 수업 중!
- 072 03. 수업스케치 : 두렵지 않은 첫걸음



우리, 누구나학교 스토리북
누구나학교
에서 노자
는





미.
우린 이제
누구나 학교
사람
맘

유지민	누군가의 학교에서 누구나의 학교로
최규선	경험의 공유만큼 나를 성장시키다
마치모토 & 후치모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누구나학교
도진욱	시인을 꿈꾸는 직장인
김민경	여고생 민경 쌤의 정말 재미난 미술사
성도영	대학생이 만들어 가는 커피향 나는 통기타, 그곳엔 소중한 것이 있다
김소라	누구나학교를 통한 삶의 변화
최인숙	능력이 배려로, 재봉틀 수업
이복순	내가 받은 사랑, 봉사로 나누다
조용미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커피
김규식	공감온도 100도씨
전숙희	나를 사랑하게 해주다

누군가의 학교에서 누구나의 학교로

글 | 유지민

방학을 맞아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 방학 특강을 열 만한 곳을 웹 서핑 하는 건 꽤 오래된 나의 습관이다. 12월의 문턱이 되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이의 방학 프로그램을 알아보다가 수원시평생학습관까지 오게 되었다. 온라인 신청의 간단함과 무료라는 매력, 자신의 컵 하나라는 특이한 준비물에 일단 무조건 신청부터 했다. 무료강의는 선착순이라는 나도 모르게 주입된 선입견으로 마감되기 전에 신청부터 하고 보자였다.

그렇게 신청했지만 막상 강의 당일이 되니, '마트 시식코너의 맛보기 행사같은 형식적인 강의는 아닐까, 날도 추운데 별로면 괜한 시간 낭비, 집안일이나 할까?' 라는 생각에 망설여졌다. 결국 혼자서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학습관 입구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확 날아든다.

소소하지만 정감어린 손글씨 메모지가 열매처럼 매달려 있는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보통 이런 나무 조형물은 카페에서 많이 봤는데. 여기 평생학습관 아닌가? 정형화된 이미지의 공공기관에 익숙한 나는 잠시 착각을 일으켰다. 그때의 첫인상은 (4학년 아들의 표현을 빌리자

면) 마트에서 사온 냉장 우유겠지하고 마셨는데 젓소에게서 갓 짜온 목장 우유를 먹게 된 그런 신선함이었다.

산소통 사무실·도요새 책방·거북이 공방·담쟁이 카페·강의실까지 찾아가는 복도 곳곳에서 얼굴을 내밀며 말을 거는 풋말들은 또 어찌나 발길을 붙잡던지 결국 강의는 지각하고 말았다. ‘와! 이거 뭐야. 내가 학습관이 아니라 어디 갤러리에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손바닥만 했던 기대는 어느새 두 손 가득, 한아름이 되었다. 생각보다 작은 강의실, 오밀조밀 바로 코앞에서 서로를 봐야 하는 구조. 지각한 사람이 용감히 밀고 들어가기엔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작았다. 잠시 또 망설임. ‘강의를 방해하기 싫은데, 시선집중도 부담스럽고.’ 심호흡 한번, 망설임을 밀치고 들어선 순간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는 얼굴, ‘늦은 건 별거 아님,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해주는 미소였다. 게다가 차와 간식까지 그냥 주신다. ‘이래도 되는 건가. 수강료도 없는데.’ 솔직히 자본주의에 찌든? 나로서는 차까지 주는 무료가 신기했다.

입구의 신선함, 작명의 창조적 감성, 강의실의 따스한 분위기, 삼박자가 딱! 수원에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숨어 있었다니. 강의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다. 자발성을 전제로 한 가르침과 배움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누가 시키지 않았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정성된 준비로 열정을 불사르는 강사님, 숨소리만 들리도록 초고도 집중 중인 수강생들. 게다가 편안하고 따뜻하고 자유스런 분위기. 그림책이 이렇게 재미있고 달달할 수 있는가!

누구나학교 첫 강의를 들은 소감은 한마디로 정리된다. ‘또 가고 자꾸 가고 싶다.’ 집으로 돌아와 바로 누구나학교 홈페이지를 누비고 다니며 시간 맞는 강의는 다 신청해놓고, 학습관의 다른강의도, 아이의 방학 특강도 신청했다. 왜 그리 좋았을까? 누구나학교가.

할 줄 아는 뜨개질은 핸드워머 딱 한 가지. 그것도 아주 기초 뜨기로만. 그런데 누구나학교의 강의를 연 선생님. 자신도 이곳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음 사람들로 배움과 가르침의 바통을 이어가고 싶어 두 번째 강사로 섰다는 선생님. ‘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별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을 별 것으로 만드는구나. 대단한 자격과 기술이 없어도 훌륭한 배움의 장을 열 수 있구나! 그 분보다 뜨개질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눌 생각 못했던 내 생각들이 부서졌다.

특별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누군가로 와서 누구나 학생도 선생도 될 수 있어서 누구나학교가 그리 좋았나보다. 형식과 절차와 자격에 침몰하지 않고 배움과 가르침과 깨달음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작은 학교. 그러나 어느 학교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날 것의 학교. 그 신선함과 따뜻함이 오래 오래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소망하며 2014년은 내게도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나의 일원으로 활약해보길 살피시 기대해본다. 누군가의 학교인가 하고 와서 누구나의 학교에 바로 그 누구나가 되고 될 것이고 되고 싶다.



경험의 공유만큼 나를 성장시키다

인터뷰이 | 최규선

“10년 동안 외국계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독서 토론 관련 온라인 카페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운영하고 있지요. 나눔과 그로 인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최규선 님의 누구나학교 홈페이지 소개글이다. ‘저녁 있는 삶’이 무척이나 요원한 바쁜 직장인이 어떻게 독서 카페까지 운영하고 누구나학교에 꾸준한 재능공유까지 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학습관이 생길 때부터 드나들며 여러 강의를 들었어요. 학습관의 강좌들 죄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강좌들이더라고요. 학습관에 1년 정도 다니며 수업을 듣다보니 누구나학교에 참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해서 최규선 님은 12월<리더십 프로젝트>라는 4주 강좌를 열었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주제로 3주 강의를, 또 대중 앞에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스피치> 강의를 열고 있다. 2014년은 매달 강의를 열겠다는 포부까지 비쳤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여는 이유는 뭘까?

“직장을 다니면서 나만의 무기 하나쯤은 있어야 하잖아요. 요즘은

평생직장이 없지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준비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무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난 이것 하나는 전문으로 하겠다, 이것 하나는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면 열심히 익히고 그 익힌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지요. 그럴 때 내 지식이 더욱 체계화되고 또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지요. 예를 들어 이번에 엑셀을 마스터하겠다, 하면 엑셀을 공부한 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 것을 나누면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지요.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남들과 나눌 때에 더 크게 배울 수 있다는 말! 최규선 님에게 ‘내 지식’이라 한다면 스피치다. 회사 업무상 프리젠테이션과 스피치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그분야를 꾸준히 공부해 오고 또 같이 공부한 사람들과 클럽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최규선 님의 2014년 목표는 강의를 100번 하는 것이다. 동아리나 클럽, 또 누구나학교 등에서 강의를 100번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니, 앞으로 누구나학교에서 최규선 님을 볼 일이 더 많아지겠다 싶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자기계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직장인들, 가장 좋은 건 개인적 관심이 회사의 업무와 맞물려 업무에도 시너지를 발휘하고 본인에게도 즐거운 자기계발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최규선 님은 누구나학교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남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꺼내 보여야 비로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울 수 있다며, 누구나학교가 그런 기회를 주어서 참 감사하단다. 한마디로 누구나학교는 기회의 창. 그래서 누구나 강의를 열 수 있는 누구나학교를 더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한다.

사실 남 앞에 서기란 처음에만 어렵지 한번 강의를 열고나면 용기가 생기고 경험이 쌓여서 쉽게 느껴진다. 처음에만 용기내면 그다음 스텝은 그리 어렵지않은 거다. 경험의 공유,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큼 지식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 최규선 님. 앞으로 누구나학교가 문턱이 더 낮아져서 <누구나 쉽게 하는 타이어 교체 방법>, <우리 집 벽지 예쁘게 바르기> 등... 같은 '얼토당토않은' 소소하고 자잘한 일상의 아이템들이 강좌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이야기하였다.

이제 야근과 회식으로 마치는 직장인의 하루가 아니라 누구나학교에서 경험의 공유를 하는 직장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누구나학교, 없어지면 안돼요~

인터뷰 | 마츠모토 치토세 & 후지모토 미유키

누구나학교에 종종 보이는 얼굴이 있다. 두 명의 일본인. 일본인이라고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할까 생각하면 오산, 거의 수준급이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누구나학교 수업에도 본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친구인 두 분이 <인생 2막은 귀농을 생각하는 당신에게> 강좌에 함께 오셨던 참에 인터뷰를 신청했다.

“귀농에 관심 있으세요? 같이 오셨네요.”

“네, 저희 둘 다 귀농에 관심 많아요. 전에 일본에서도 농촌에 살았어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농촌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귀농 수업을 듣는 내내, 머리를 끄덕이고 노트를 하는 등 열심이신 이유가 있었다. 두 분께 기억에 남는 누구나학교 강좌를 물었더니 마츠모토 님은 <미술치료>를, 후지모토 님은 <영상으로 만드는 자서전>을 꼽았다. 미술치료 수업 때 남편과 사춘기 아이로 인해 힘든 점을 털어 놓고 또 공감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 나를 좀 더 챙겨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다만 아쉬운 건 수업이 2회로 끝나 더 이상 선생님과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기억난다. 가족을 그리는 미술치료 시간 마츠모토님은 도화지에 자신을 조그맣게 그렸다. 열정의 에너지가 많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그림에서 보인다며 강좌 선생님이 좀 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원하는 것을 하라는 조언을 주셨던 게 기억난다. 남편과 사춘기 아들 사이에서 자신의 따뜻한 에너지를 누르고 있다고도 하셨다.

“한국에 오고서 관계 맺는 곳이 없어서 전에는 더 힘들었어요. 한국 아줌마들과 친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죠. 지금은 복지관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어 과외도 하고 있어요. 누구나학교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 때문에 와요. 사실 일본인들끼리 하는 모임도 있지만 여기 오면 한국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다만 좀 더 친밀하게 관계 맺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아쉽지요.”

마츠모토님은 사람을 좋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다.

“비록 미술치료 수업 때 함께했던 사람들과 전화번호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누구나학교에서 언젠가 또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참 좋아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니 편안하게 느껴지고요.”

후지모토님은 누구나학교를 통해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기쁨이 쏠쏠하다고 한다. 사진을 통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 것도 누구나학교이다. 초등학교 5학년·중1·중3 아이들이 있는 후지모토님은 지금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있어 누구나학교에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관심 가는 강좌가 있으면 한 번씩 오신다고 한다.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강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인터뷰를 마치는데, 마츠모토·후지모토님 모두 누구나학교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한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누구나학교에 꼭 오시겠다고 한다.

낯선 문화, 익숙지 않은 곳에 와서 처음에 언어를 배우라, 문화에 적

응하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는 마츠모토·후니모토 님. 여전히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이 있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싶은 두 분을 보며 누구나학교가 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 향기 나는 곳, 바로 누구나학교가 지향하는 바다.



시인을 꿈꾸는 직장인 김오민

인터뷰이 | 도진욱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마음에 담으면 '시'가 돼요

아픈 사람의 새벽

아픈 사람의 시간은 참 더디 간다

밤새 끄응 끄응

몇 번을 까무라쳤다 깨어나도

새벽은 저 멀리서 놀며, 쉬며

다가오지 않는다.

누구나학교 <생활글쓰기>의 수업을 연 도진욱 님이다. 지난 달에도 한 번의 글쓰기 강좌가 열렸다. 저녁 시간이라 참석자가 적었지만 그만큼 알짜배기 수업이었다. 자작시를 읽고 함께 자유로운 평을 하고, 느낌을 나누는 신선한 경험을 했다. 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나 할까.

도진욱 님의 글쓰기 강의는 사실 정제된 글쓰기라고 하기보다 생활 속의 단상을 적는 보통사람의 강의다. 전문 작가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다. 그렇지만 시를 한 편씩 지으면서 삶의 재미를 느끼는 분이다. 그리고

글쓰기를 사람들과 공유하길 원하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다.

“시를 쓰는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긴 글을 다듬고 정제하고 빼나가는 과정이 시라고 한다. 놀라운 인식 전환이다. 무언가를 많이 채워 넣어야, 혹은 분량이 많은 글을 써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내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간이라고나 할까.

사실 많은 이야기가 없는 시에서는 오히려 상상의 즐거움을 준다. 생략되고 축약된 의미 속에서 나만의 관점을 부여할 수 있기에 즐겁다. 설명이 많은 시는 오히려 읽을 때 거부감이 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글을 많이 쓰고, 적게 쓰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중요하죠!”

누구나학교의 생활 글쓰기 강좌를 열게 된 도진욱 님은 문학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 통신회사에 다니면서 글을 쓰는 멋진 분이다. 예전에 회사 사보에도 글을 쓰고, 여러 곳에 기고한 적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 매달 한 편씩 괜찮은 시를 써 내서 시집을 내는 것도 목표라고 하니 함께 응원하고 싶다. 한 달에 한 편의 시를 쓰는 것, 생각보다 괜찮은 도전인 것 같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 한 편씩 모아서 10년 안에 시집을 낸다고 해도 정말 해 볼 만한 일이다.

“시를 잘 쓰려면 많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시절 시를 좋아하여 무수히 많은 시집을 읽었다고 말한다. 1,000 권은 못 될지라도 꽤나 많은 시집들을 읽으면서 시 쓰기를 열망했던 청년이었다. 하지만 시가 좋다고 하여 시를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꾸준히 글을 써 온 성실함은 대단하다. 종이와 연필, 아니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무언가를 끄적거릴 수 있는 시대다. 그렇기에 시를 쓰는 건 어찌면 더욱 쉬워졌는지도 모른다.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새겨들어야겠다.

도진욱 님의 <생활 글쓰기> 강의는 어찌면 배움보다 ‘인식’의 계기

를 만들어준 시간인 것 같다. 아하! 라는 생각 말이다. 몰랐던 사실보다는 잊고 있었던 삶에 대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거기다가 소수의 인원, 2명이 함께 들으면서 조금은 진지한 나눔이 있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 바로 누구나학교의 장점이기도 하다.

다음 달에는 어떤 주제로 생활 글쓰기를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글쓰기에 대해 큰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진욱 님의 강좌를 기다려봐도 좋겠다.



여고생 민경 쌤의 정말 재미난 미술사

인터뷰이 | 김민경

“미술사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미술을 전공하고, 큐레이터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미술사와 관련된 강의를 열기로 했어요. 비록 준비하느라 밤을 새워서 힘들긴 했지만, 학교 공부보다 훨씬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겨울방학에 고등학생들을 위한 ‘누구나쌤’ 워크숍이 열렸다.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주를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느꼈고 꿈꾸기 시작했다.

“앱 개발자가 될 거예요.”

“전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손마사지를 배워서 어르신들을 찾아가 봉사도 해요.”

“기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전 디자이너요.”

아이들의 꿈꾸는 소리가 가득했던 ‘누구나쌤’ 워크숍을 통해 만난 이들은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를 누구나학교에서 만들었다.

미술사 공부가 너무 좋다는 민경이는 “정말 제가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라고 되물으며, 강의 진행을 신청했다. 미술사에 대해서 함

께 공부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강의에 참여하는 대상이 다양한 계층이라는 것에 약간의 부담은 되었던 것 같다. 실제 강의 참여자의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50대 후반. 여고생의 첫 강의로는 정말 긴장할 만 했지만 험레벌떡 뛰어 들어온 민경 쌤은 처음의 떨림은 어디로 갔는지 침착해 보였다.

“오늘 여기 온 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답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1억씩 드리겠습니다.”,

민경 쌤은 강의 참여자의 이름을 칠판에 표시하고, 질문에 답하는 이의 이름 옆에 正자로 표시를 하며 강의를 이끌어갔다. 미술사의 흐름에 대해서 본인이 배운 것, 들은 것,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하였다.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을 모른다고 하기도 하며, 참여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가 끝날 무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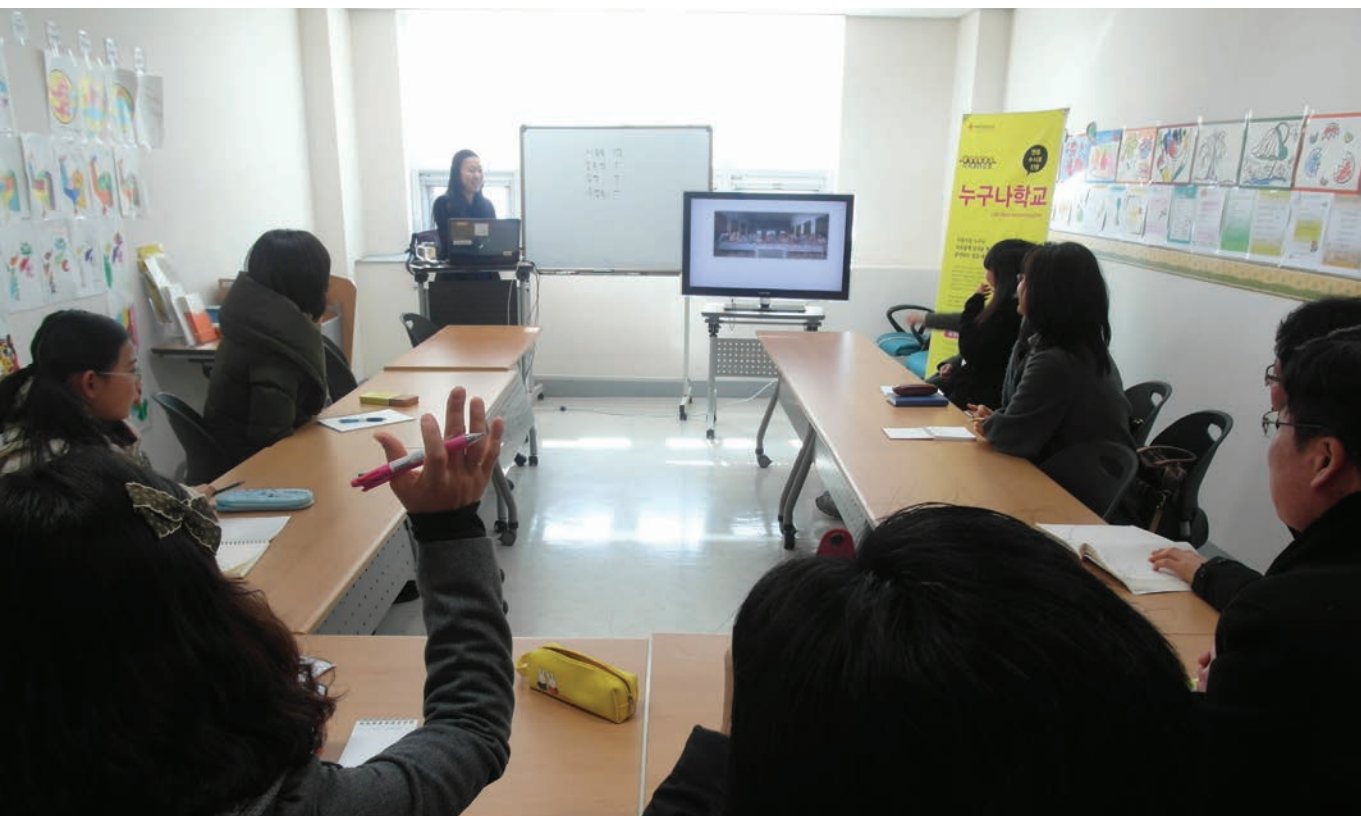
“오늘 강의로 모두 부자가 되셨네요. 25억, 16억, 전체 인원이 답한 것들이 있어서 기본 5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명작들을 프린터해서 코팅을 해왔어요. 오늘 강의 시간에 본 작품들이죠?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작품이 있다면 경매형식으로 작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경매가 시작되었고, 참여자들은 이 어린 선생님의 재치에 손뼉을 쳐주었다. 하나 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강의실을 나섰고 그 중에서 유난히 미술에 대한 지식이 많아 보이셨던 한 분의 모습을 발견했다. 미술에 대해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진 분인데 왜 이 수업에 참여하셨던 걸까? 그분의 말씀은 이랬다.

“미술이라는 것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보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 나름대로 미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

람이지만 18세 소녀가 보는 미술을 어떤 것인지 그 관점이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죠.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느낀 것은 미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관점, 18세 소녀가 보는 관점이 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관점이 통해서 소통하는 수업이라고나 할까요?”

예술 감상의 방법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태도라 하겠다. 누구의 작품이고,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어떤 미술관에 걸려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마도 ‘민경 쌤’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유의 태도가 아닐까?



대학생이 만들어 가는 커피향 나는 통기타 그곳엔 소중한 것이 있다

인터뷰이 | 성도영

약속한 시간 한 쪽 어깨에 커다란 기타가방을 메고 양손엔 무언가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성도영 님이 나타났다. 도대체 저 가방엔 무엇이 들은 걸까? 호기심이 발동하여 가방을 기웃기웃 해 보았더니 가방엔 커피콩과 커피 내리는 도구들이 한 가득이다.

성도영 님은 누구나학교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한 고마운 선생님이다. 성도영 님의 강좌 ‘커피향나는 통기타 교실’은 이름 그대로 통기타를 배우며 커피를 함께 마시는 소통의 장이다.

어떻게 이런 강좌를 열 생각을 했을까 궁금했다.

처음 누구나학교를 알았을 때는 자신이 제일 잘 하고 자신 있는 ‘수학’으로 시작하고 싶으셨단다. 그런데 누구나학교 취지를 알고 나니 수학 말고 요즘 관심 있게 배우고 있는 ‘기타’가 떠올랐다고 한다. 전문가 는 아니지만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이는 수준의 통기타를 다른 분들과 나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한 통기타교실이 벌써 1년 반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얼까 궁금했다. 누구나학교는 성도영 님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한다. 가르쳐야 하니까 스스로 연습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타실력은 저절로 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경험도 늘고 새로운 것들도 알게 된다. 이런 과정이 신나고 재밌고 보람 있다고 한다.

사람을 사랑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성도영 님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처음 누구나학교를 시작한 이유도 성도영 님이 만났던 고마운 분들이 가르쳐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 좋은 선생님께 배운 고마운 가르침을 자신이 좋은 선생님이 되어 많은 분들과 나누고, 이 분들이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되어 또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을 꿈꾸었다는 성도영 님.....누구나학교의 취지를 이미 마음 속에 짝으로 키우고 실천하고 있음에 가슴이 뭉클해 왔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성도영 님이 바라본 누구나학교는 어떨까 궁금했다. 성도영 님은 누구나학교를 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 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이 많아져 누구나학교가 북적북적 해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아쉽게도 2014년 올 한해가 성도영 님을 누구나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듯 싶다. 내년에는 선생님께서 계획하셨던 긴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아쉽게도 2014년 한해가 성도영 님을 누구나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듯 싶다. 2015년에는 계획한 긴 유학길에 오르게 되어 마음이 바빠진다고 한다. 남은 한해 학생들의 수준을 더 올려 수업을 듣는 분들 중 본인의 바통을 이어 통기타 교실을 열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영 님을 못 보는 건 너무 아쉽지만 그의 뒤를 이어서 열리는 <커피향기 나는 통기타 교실>이 기대 되기도 한다.

이쉬운 인터뷰를 뒤로 하고 성도영님께 마지막 질문을 했다.

‘나에게 누구나학교란?’

“소중해요. 좋은 게 매우 많으니까.....”

1년이 넘도록 누구나학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은 선생님이로 나
님을 실천한 성도영님은 누구나학교에서도 소중한 선생님이다.

바람대로 성도영님처럼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생들이 많아지는 소
중한 누구나학교를 기대해 본다.



누구나 학교를 통한 삶의 변화!

글 | 김소라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생긴 후 자연스럽게 배움에 관심이 많던 나는 기웃 기웃 학습관 강좌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학습관에서 동아리도 개설하고, 모임도 만들면서 점점 사람들과 행복한 만남을 갖던 중 2012년 6월에 누구나 학교를 시작한다는 제안에 솔깃했다. 몇몇 학습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설명회 같은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그리고 빠른 실행력으로 직접 누구나 학교에서 강의를 바로 만들어보기로 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사람들과 나누고, 대가없이 배움을 공유하는 '누구나 학교'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들으러 올까 궁금하기도 했다. 강사료가 없는 강의를 해야 했지만, 정성 들여 준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누구나 학교에서 다양한 강의를 해보았다.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글쓰기>, <MBTI로 알아보는 나의 성격유형>, <2013년 자기 발견 프로젝트>, <2013~2014년 새해 설계 코칭>, <스토리가 있는 화성 걷기 1~3회차>, <양평 소나기 마을 문학기행 떠나기>, <패러디 그림책 상상 여행 떠나기>, <그림책으로 상상력 UP>, <알랭 드 보통의 인생학교 사랑과 성 이야기 나누기> 등의 강의였다.

이미 내가 어딘가에서 배운 것들, 알고 있는 내용, 동아리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거나 책으로 학습한 지식들이었다. 함께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과 어우러진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기에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누구나학교는 삶의 재미와 유익을 창출하는 길이 되었다.

또한 누구나학교로 만난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 귀중한 만남을 잊지 못할 것 같다. 201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자기발견프로젝트>수업을 통해서 3명의 인생친구를 만났고, 매달 1~2회씩 인생수업을 진행하였다. 누구나학교 수업은 끝났지만, 매달 만남을 갖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건설적인 미래를 꿈꾸는 모임으로 연장되었다. 좋은 친구, 언니를 찾게 된 누구나학교 강의였다. 선생과 학생의 만남이 아닌 친구 같은 만남이 누구나학교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지금껏 했던 누구나학교 중 나름 인기 있었던 시간은 <스토리가 있는 화성 걷기>였다. 2013년 1~2월 KYC에서 하는 '화성길라잡이' 교육을 받은 후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화성을 안내해주는 봉사를 하고 싶어서 누구나학교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았다. 2013년 3~5월 봄날이 한창인 날 사람들과 화성을 걸었던 일들이 떠오른다. 벚꽃이 흩날리며 햇살이 한창 좋았던 어느 날, 약 15명의 사람들과 화성을 걸으면서 많은 이들이 수원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며 감사를 전했다. 닫힌 교실이 아닌 화성이라는 유서 깊은 곳을 직접 발로 걸으면서 답사했던 수업이어서 모두에게 만족감을 준 것 같다.

이와 함께 학습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권가약' 책읽기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그림책 강좌를 만들어서 누구나학교로 진행해본 적도 있다. 동아리 회원들이 배운 것을 시민들과 나누고, 스스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키워보는 일이기도 했다. 그림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거리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림책 강의도 주부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았던 누구나학교 강의였다.

누구나학교에 발을 들여 놓은 지 햇수로 3년. 마음속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누구나학교 강의를 꼭 하리라는 다짐을 하고 있다. 누가 시켜서 하

는 일이 아닌 나 스스로와의 약속이랄까. 사실 어떤 전문성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마음만으로 시작한 '누구나학교'이지만 점점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진다. 심지어 다른 곳에서 특강을 듣거나 만들기 등을 배우면 '누구나학교'에서 내가 가르쳐 볼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누구나학교'를 해 보라고 자연스럽게 전도(?) 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다. 천선옥 시인에게 제안하여 '누구나학교'에서 동시 강의를 두 번 열게 하였고, 영어 강사 김영진 님에게 엄마표 영어 수업을 해보라고 권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재주, 특기 등이 한 가지씩 있게 마련 아닌가? 그것을 이야기로, 기법으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누구나학교' 아닌가?

2014년에도 역시 배움을 놀이로, 놀이를 삶으로 만들어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학교'에 참여하여 학생으로 또한 선생이 되면 좋겠다. 나는 또한 2014년 한 해 동안 어떤 '누구나학교' 강좌를 만들어서 재미난 인생 놀이터를 구상해 볼까?



능력이 배려로, 재봉틀 수업

인터뷰이 | 최인숙

최인숙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내 뒤를 졸졸 따라오는 것이 있었다. 2년째 사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우리집 재봉틀의 영혼(?)이 진작 수업이라도 듣지 그랬냐고 나를 타박하면서 길을 재촉했다. 구식 재봉틀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서 4년 전쯤 미니 재봉틀을 샀고, 생각보다 빨리 망가진 미니 재봉틀을 바라보며 난 호기를 부렸다. 좋은 재봉틀을 사서 나도 한번.....그러나. 2년째 그 재봉틀은 장식품 아닌 장식품. 그런 나였기에 최인숙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기쁨에 넘치면서도 숙제 밀린 아이같은 기분이었다.

최인숙님을 만난 곳은 담쟁이 카페 옆 상담실. 하얀 피조끼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인터뷰를 하며 여쭙보니 피조끼는 물론이고 입고 계신 풀라까지 전부 수제품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 ‘그냥 박으면 되죠. 별 건 아니에요’ 게다가 피조끼로 보였던 것은 쿠션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천을 활용하셨다고. 아이디어도 솜씨도 정말 고수이지구나 싶었다.

실제로 최인숙님의 프로필을 살펴보니 거의 ‘걸어다니는 문화센터’ 손으로 할 수 있는 웬만한 것은 다 하실 줄 아는 것 같았고, 오랜 기간 같

고 뛰어난 실력으로 하실 줄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문가였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최인숙님께 누구나학교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즐거움을 주는 곳일까?

이런 내 질문에 대한 최인숙님의 답변은 ‘필요를 채워주고, 그 속에서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처음에는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과 기쁨이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는데 최인숙님의 설명은 이랬다. 외부 수업의 경우 재봉틀 수업은 ‘기본-중급-고급’ 과정 식으로 진행되는데 실제 재봉틀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아주 소박한 바람을 갖고 재봉틀 교실을 찾는다는 것이다. 지퍼 다는 법을 알고 싶다는지, 바이어스 처리법을 알고 싶다는지.....그것만 알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것만 따로 가르치는 곳은 없다는 것. 누구나학교는 그야말로 누구나 선생님이 되어 배움을 나누는 곳이기에 최인숙님은 누구나 필요를 느낄 만한 부분에서 수업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최인숙님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하는 기쁨을 위한 따뜻한 배려를 읽을 수 있었다. 가령 이런 거다.

지퍼 다는 법을 위한 수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파우치 만들기를 진행하지만 파우치 만들기는 지퍼 외에 바이어스 등 다양한 기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하셔도 되셨을 것 같은데 최인숙님은 주어진 시간에 제대로 배우려면 다른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단다. 그래서 세탁망 만들기를 떠올리셨다는 것. 단순히 재봉틀을 잘 하셔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최인숙님의 마음과 연륜이 합쳐져서 나온 재봉틀 수업이었던 거다.

요즘 최인숙님은 손으로 하시는 작업 외에 생태에도 관심을 갖게 되신다고 한다. 그런 최인숙님께 다양한 행보를 하시는 것 같다고 했더니 다양한 게 아니라 모두 이어진 것이라고 답하신다. 어느 수필가의 글 제

목을 활용하자면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의 길을 만든다고나 할까.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2014년에는 나도 선생님께 재봉틀로 지퍼 달
기를 배워서 언젠가 누구나학교에서 다른 분들과 또 그것을 나누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내가 받은 사랑, 봉사로 나누다

인터뷰이 | 이복순

이복순 님과의 만남은 수원이주민센터 정연희 팀장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이주민센터 다문화여성들이 한지공예를 1년 동안 배웠는데 이분들이 누구나학교를 경험하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이복순 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웬걸, 1년 만에 배웠다기 보다 이 분은 한지공예 베테랑이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계셨다. 한국에 온지 벌써 13년째. 그동안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언어장애와 남편의 무관심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2년 전 수원이주민센터를 알게 되어 한지공예를 배우게 되었다.

“중국에 살 때 옷을 만들었어요. 원래 만드는 것에 관심 있었는데 이주민센터에서 비즈공예를 하다가 한지의 매력에 끌려 한지공예를 배웠지요. 배울수록 멋스러운 공예품이 탄생하는 걸 보고 참 재미있다고 느껴요. 앞으로 한지공예 강사가 되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이복순 님은 한지공예를 배우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 재능나눔을 하고 있었다. 아직은 더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괜찮은지 문자 의외의 말씀을 하신다.

“장애인복지관에 꾸준히 나갔어요. 장애인 자녀가 치료를 받을 동안 장애인부모회에 가서 엄마들에게 한지공예를 가르쳐 주지요. 아들이 언어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요.”

장애가 있는 아들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낯선 한국 땅에서 마음 나눌 사람도 없어서 참 힘들었는데, 복지관에 가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더 엄마 마음이 된다는 이복순 님. 봉사를 하다 보니 비록 장애가 있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생긴다고 한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모임에도 나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잘 교류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엔 모든 게 어렵고 아는 사람도 없어 힘들었는데, 이젠 모임에 나가고 정보도 얻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고 한다.

인터뷰 내내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아들 덕분에 온갖 부모 교육을 받으러 다니며 똑똑해졌다고 울음 속에 미소를 지으신다. 전에는 오전 시간에 늘 텔레비전만 보았는데, 이제는 오전에 무엇이든 배우러 다니고 오후에는 아들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한지공예를 배워서 남에게 봉사하러 다니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이주민센터에서 무료로 1년 간 한지공예를 배웠어요. 이젠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 보답을 해야죠. 봉사할 때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얼마 전엔 중국인 친구들과 중국문화, 중국어를 알려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방과후교실 같은 곳에 가서 중국을 알리는 일도 하고 싶어요.”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저않지 않고 한지공예를 배우고 또 그 재능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삶의 즐거움을 찾는 이복순 님, 꿈을 더 키워 가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이복순 님을 누구나 학교도 응원합니다!



어디서나 즐기는 커피 수업

인터뷰이 | 조용미

조용미님을 만나러 가는 길. 강의실이 아니라 카페로 향했다. 조용미님은 담쟁이 카페 바리스타로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그 행복함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 그야말로 커피가 그저 좋았고 좋아하는 것을 즐기다보니 커피를 만드는 일이 직업이 된 케이스. 국내에 막 커피 전문점이 들어서기 시작하던 10년 전부터 커피 전문점 커피 맛을 집에서도 느껴 보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하셨다고 한다.

“처음엔 아메리카노가 에스프레소를 희석해서 맛이 흐리멍덩해진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커피를 계속 마시다보니 아메리카노가 오히려 에스프레소의 본래 맛을 살려주어 부드럽게 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조용미님은 그렇게 알아간 커피 맛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셨단다. 이미 만들어진 커피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자신의 커피를 찾아가는 즐거움을 누구나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싶으셨던 것. 그래서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커피>라는 강좌를 여셨단다. 수업 시간에 나라 별 커피 종류와 커피 분쇄도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비싼 도구가 있어야 좋은 커피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란 편견도 깨졌고, 우리의 삶도 개개인의 재료를 어떻게 갈아 어떤 잔에 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담쟁이 카페는 조용미 님의 일터이자 커피를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이다. 조용미 님의 수업은 팔달문 근처 비즈니스 샘카페에서 지금도 그 향기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온도 100도씨!

인터뷰이 | 김규식

아래위로 딱 달라붙은 운동복 차림의 남자! 12월 두 번째 주 월요일 저녁, 누구나학교 <리더십 프로젝트> 강좌에 방금이라도 막 체육관에서 달려 나온 듯한 모습의 한 남자가분이 오셨다. 운동선수인가?

4주간 수업을 함께하며 알게 된 김규식 님의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공무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한 사건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번창하던 사업이 크게 실패하고, 그 사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삶이 무기력해지던 때, 몸무게는 120kg까지 올라갔다. ‘이러면 안 되지, 가족이 있는데...’ 하면서 시작한 게 마라톤이라고 한다. 처음엔 멧모르고 준비 없이 마라톤 대회에 나갔다가 죽는 줄 알았다고... 이제는 마라톤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며 해마다 춘천마라톤에 출전하고 있다고 한다. 30km가 넘는 거리의 회사까지 매일 뛰어서 출퇴근을 하니, 그 날도 운동복 차림으로 퇴근길을 뛰어서 누구나학교에 오신 거다.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는 김규식 님은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글쓰기 수업을 찾다가 누구나학교를 알았다고 한다. 학습관을 알게 되고 누구나학교를 알게 된 지 정말 얼마 안 된 새내기이다. 12월에 처음

누구나학교를 알게 되고 <리더십 프로젝트> 강의를 들었는데, 예전에 리더십에 관해 조금 더 알았다더라면 지난날의 실수는 안 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다고 한다. <리더십프로젝트> 강의를 시작으로 <감사일기 쓰기>, <2014 새해설계> 강의도 참여하면서 누구나학교의 매력이 폭 빠지게 되었다. 특히 <2014 새해설계> 강의는 그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들과 모여 새해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없던 김규식 님에게 신선한 경험이였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계획을 나누니, 내가 말한 만큼 꼭 실천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계획하며 삶을 살아가는지 볼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시민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는 누구나학교는 처음 접해봤는데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대규모 강좌가 아니라 소수인원이 모여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지식과 정보를 얻어가는 모습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아깝다고 아쉬워하는 김규식 님.

“기존의 교육이란 건 정형화된 틀이 있죠. 남의 지식을 제 것인 양 이야기하고 그 지식을 딱딱하게 전달하죠. 또 학습자는 그 지식을 그냥 듣기만 하는 존재지요. 하지만 누구나학교는 자신이 가진 노하우나 진짜 경험한 살아있는 지혜를 진솔하게 나누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이런 자리가 참으로 소중한합니다.”

짧은 시간 누구나학교를 접했는데도 누구나학교에 관해 애정이 많으신 김규식 님.

“선생님은 어떤 걸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문자 텔레비전에서 하는 <강연 100도씨>를 본 적이 있냐고 물으시다.

소소한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강연 100도씨>는 나도 무척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만약 내가 누구나학교에서 강의를 연다면 ‘실패에 집착하지 말라’는 주제로 내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자 인생이 끝인 줄 알고 절망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은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에 집착하지 말고 충분히 다른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전 이 말을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포레스트 검프〉란 영화에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른다.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또 성공일 수도 있다. 혹시 실패라 하더라도 그 다음 초콜릿을 기대할 수 있는 힘, 김규식님은 그 여정에 관해 나누고 싶으신 거다.

누구나학교에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매력적이고 훈훈한 이야기가 넘치는 누구나학교를 많이 모르는 것 같이라며 아파트 단지에 홍보할 수 있는 팁을 줄줄 말씀해 주신다. 그런 김규식님에게 누구나학교에 대한 무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공감.” 김규식님을 만나고 나서 든 생각이다. 누구나학교는 공감의 매력이 있는 곳이다. 내 이야기와 저 사람의 이야기가 만나 공감을 이루고 그 공감의 물결이 퍼져 따뜻한 에너지가 넘치는 곳. 이래서 누구나학교의 공감 온도는 100도씨!! 언젠가 김규식님의 인생 이야기를 누구나학교에서 들을 날이 오겠지.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나를 사랑하게 해 준 누구나학교

인터뷰 | 전숙희

〈세 얼간이를 보고 이야기 나누기〉. 전숙희 님이 처음으로 누구나학교에 와서 들은 수업이다. 2013년 11월에 연 강좌니 전숙희 님이 누구나학교를 안 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누구보다도 많이 누구나학교를 맛보았다. 〈퀼트로 트리 만들기〉, 〈감사일기 쓰기〉, 〈그림책 읽기〉, 〈메이크업 배우기〉 등 누구나학교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무척 쉽다며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전숙희 님을 더 만나보고 싶었다.

전숙희 님은 수원시 홈페이지로 들어갔다가 명사특강 안내글을 보고 수원시평생학습관을 알게 되고, 누구나학교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마흔 초반부터 직장생활을 하다가 폐업이되면서 11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지 2년 조금 넘었다고 하였다. 직장 다니면서 51세부터 심한 갱년기를 겪으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건강의 적신호를 겪게 되었다. 삶의 활력소가 없어지고 어지럼증에 시달리며 표정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무기력해져 갔다. 지인의 도움으로 함께 걷기도하고 삶의 페이스를 조금씩 회복하면서 2013년 4월부터는 오후에 병설유치원 보조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전에 누구나학

교 수업을 듣고 오후엔 유치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상이 참 좋다고 하신다.

“누구나학교는 무엇보다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 강좌 중에 메이크업 시간을 통해 저의 화장방법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동안 나이만 먹었지 제대로 화장하는 법을 몰랐거든요! 간단하면서 피부도 훨씬 깨끗해 보이는 비법을 알게 되었고요. 진솔한 실력과 인격이 겸비된 선생님들을 통해 몰랐던 세계를 접하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 의미 없는 수다는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누구나학교에서는 배움이 매개가 되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수다로 흐르지 않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니 나도 거기서 힘을 얻어요. 서로 평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서 좋아요. 교과서적인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며 만나는 이 모임이 얼마나 좋은데요.”

누구나학교에 대한 칭찬이 마르지 않는다.

“비록 매끄럽게 강의하는 전문강사는 아니지만 그런 만큼 더 공감이 되고 진실 되게 나를 보일 수 있지요.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참 편하고 즐거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요.”

말씀하시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가슴에 꼭 박힌다. 그렇다. 배움이 매개가 되는 이야기, 신뢰가 바탕이 된 만남, 내 세계가 확장되어가는 경험. 전숙희 님에게 누구나학교에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게 눈에 띄게 보인다.

누구나학교를 짧게 경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세 얼간이 보고 이야기 나누기>와 <감사일기 쓰기>였다고 한다.

“영화 <세 얼간이>에 ‘All is well’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게 잘 될

거리는 즐거운 흥얼거림이지요. 이 말을 기억하고 때때로 저에게 ‘All is well’ 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환해지지요. 집에만 있으니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아픈 기억들을 되새기게 되고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움츠려들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어두워지고요. 이제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결심하고 유치원 보조교사를 하는 참에 알게 된 누구나학교는 무척 고맙고 반가운 존재랍니다.”

〈감사일기 쓰기〉 역시 기억에 많이 남는 수업이었단다. 일상의 나를 돌아보니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이었다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어 지쳐 가고, 그럼에도 내 생각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참고만 살아온 자신이 무기력해 보여서 자신이 미워졌다고. 또 이런 나를 보며 실망스러웠다고. 그런데 〈감사일기 쓰기〉 수업을 통해 나의 일상을 감사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 보겠다고 다짐하셨단다.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말을 매일 하겠다는 전숙희 님. 그동안 남들에게 초점을 맞추느라 정작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았던 지난날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제부터 자신에게 칭찬도 해주고 긍정의 욕심을 내겠다고 하신다.

“누구나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나를 만나는 시간들을 갖자 다짐했어요. 누구나학교를 통해 내 마음이 뽕뽕하게 채워져서 참 좋아요.”

밝게 웃는 전숙희 님에게서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소녀 같은 설렘이 느껴졌다. 나이 70이 되어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누구나학교에 계속 오고 싶다는 전숙희 님, 우리 더 많이 행복해지고, 더 많이 나를 사랑하자고요!!



01



02

02. 누구나학교는 수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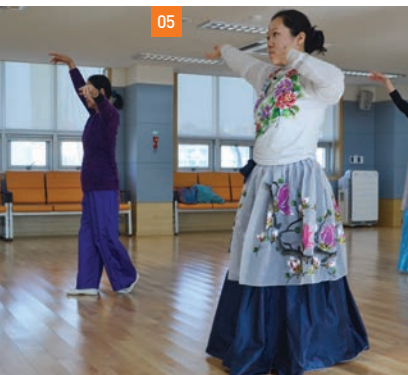
- 01 광고산 휴지기와 함께하는 재미난 도예체험
- 02 나도 앤디워홀처럼 팝아트로 그리는 자화상
- 03 마음을 어루만지는 힐링 미술치료
- 04 들썩들썩, 동시아 놀자~
- 05 버드나무용단의 오십견을 예방하는 한국무용
- 06 프레지 맛만보기



03



04



05



06



07



08

- 07 누비니회장 씨나 쌤의 퀘트소품 만들기
- 08 누구나학교 오픈너교육
- 09 10 누구나학교 네트워크파티
- 11 서예작가의 서각놀이교실
- 12 수납의 달인에게 배우는 깔끔한 냉장고정리 수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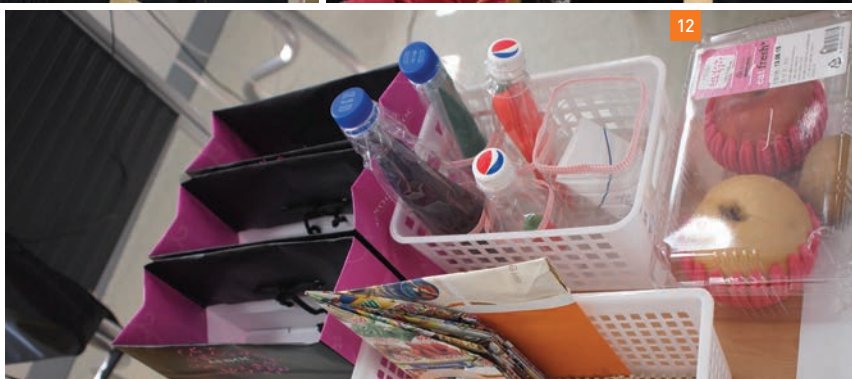
09



10



11



12



01



02

- 01 재미있는 발명이야기
- 02 이웃집아티스트의 즐겁맞이 꽃다발만들기
- 03 바느질로 만드는 헤어약세사리
- 04 에니어그램 나를 찾아떠나는 여행
- 05 예비기자랑 함께하는 어린이NIE
- 06 이미지케이션을 통해 나를 변화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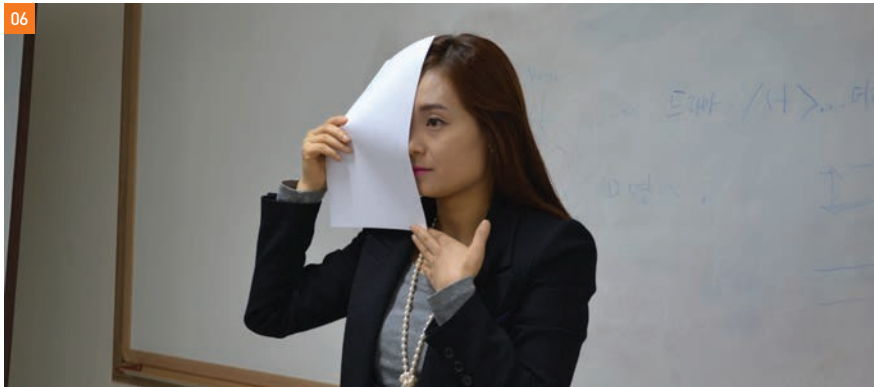
03



04



05



06



07

- 07 실크스크린으로 나만의 에코백, 티셔츠만들기
- 08 준비하고 가면 더 재미있는 터키여행
- 09 집에그린샘의 스승의날 꽃상자만들기
- 10 고등학생이 알려주는 참쉬운 트위터 페이스북
- 11 타로카드 초간단상식 익히기



08



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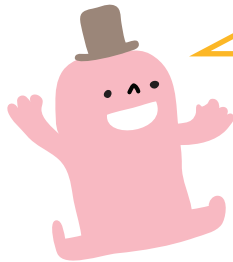


11



03.
수업스케치:
부담스럽지 않은
첫걸음

- 권성현 일 년 동안 감사일기 쓸 사람, 요기요기 붙어라~
권지현 초등맘, 우리들의 브런치 에듀 제2탄!!!
이소영 빙그레 꽃뜨래 : 꽃모티브로 북유럽 코바느질



일 년 동안 감사일기 쓸 사람, 요기요기 붙어라~

강의일시	2013-12-18 오전 10:30 ~ 11:30
강의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204호
강사명	권성현
강의대상	중·고등학생 / 성인 / 어르신
수강인원	10명
준비물	개인컵 / 노트

여러분, '감사일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항목을 적어가는 거지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겠지만, 떠올리면 정말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이 감사의 항목이 됩니다. 누구나학교에서 그 감사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2008년부터 감사일기를 써 온 권성현 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 인생에 뭐 감사할 게 있어? 하는 분들은 '다행일기'를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당장 감사일기를 써 봅시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다시 모여 감사일기를 써 본 경험들을 나누고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올 1년간 감사일기 쓰실 분, 요기요기 붙어주세요. 권성현 님이 감사일기를 쓰면, "좀더 행복해질 수 있다"에 500원 건다고 하세요. 우리 정말정말 그런지, 한번 써보자고요.

※ 감사일기를 직접 쓸 노트나 종이 가져오세요. 블로그에 쓰셔도 됩니다.

강의를 연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개합니다

수원에서 22년째 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초등교육과 심리학을 전공했지요. 말뱃이 필요하신 분께 좋은 말뱃이 되어드립니다. ^^

(감사일기 쓰기) 수업 후, 또 다른 감사가 생겼다

글 | 권성현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 한 마디에 시작한 누구나학교였다. 예전부터 하고는 싶었는데 ‘귀찮아’, ‘배우러 다닌 건 많다만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게 있나?’, ‘강의 준비할 엄두가 안 나’, 이려고 있었다. 그러다가 ‘에잇’ 하면서 “누구나학교 강의 해 보실래요?”라고 묻는 소리에 응답했다.

“네, 저 할게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다. 사실 하겠다고 말하긴 했으나 사람들 앞에 설 것이 두렵고 강의 날짜가 다가오는 게 신경 쓰였다. 화플이 노트에 ‘신경 쓰인다.’, ‘부담 된다.’ 마구 적다가 스크르다음 단계로 ‘이 걸 할까?’, ‘저걸 넣어볼까?’ 고민하다 열개가 잡히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절반쯤 쓰다만 노트를 찾아 제목을 붙였다. “강의 수첩.” 마치 스타강사나 연륜 있는 대학 교수의 자료철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이후 술술술 차근차근 일사천리로 내용을 구성했다. 그 동안 내가 써 온 감사일기 중에서 처음 쓴 것, 100개의 감사항목을 썼던 것, 그리고 강의 전날의 감사일기를 출력해서 나누어 읽은 후 ‘다행·감사·확인·칭찬·감사·용서’의 형식을 참고하여 모인 사람들이 직접 감사일기를 써 보기로 했다. 재미있을 것 같았다.

강의 전날 누구나학교 홈페이지에 댓글로 신청한 네티즌들을 보며 “감사합니다.” 소리 내어 말하기도 했다.

다음날, 화장도 하고 옷도 선생님 품으로 입었다. 그리고 집으로 전화 한 통, 엄마에게 와서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생각해 보겠다는 대답을 들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평생학습관에 도착했다. 향초를 켜고 떨리는 손으로 나의 '학생'들에게 차를 건네는데, 엄마가 강의실로 들어오셨다. 내가 감사일기를 쓰게 된 시작점이 임용 시험을 거듭 치르고 낙방하면서 힘들었던 때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이야기에 우신다.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과 함께 커리큘럼에는 없었던 엄마의 속 얘기가 나오고,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돌아보니 감사한 순간이랄까. 학습자분들의 이야기가 넘실넘실 강의실에 흐른다. 헛개나무 달인 물과 중년의 율화 이야기... 나는 침묵했지만 둘러앉은 이들 간에 이야기가 흘러 다녔다.

처음 쓰는 감사일기를 돌아가며 한 줄씩 소리 내어 읽고, 확언에 대한 내용을 끝으로 강의를 마쳤다.

이런 걸 원했다는 한 분의 말에 뿌듯했다. 그 분의 점심 제안에 모인 여섯 명 모두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말했다. 다들 오늘분의 감사일기에 적을 게 생겼다고 좋아했다. 더군다나 맛있는 밥집에 가서 대접받으니 더 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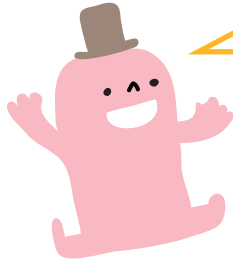
헤어지기 전에 1년 뒤 2014년 12월에 만나 감사일기 쓴 경험을 나누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1년 후 우리가 나뉘어진 똑같은 노트에는 어떤 내용이 얼마나 적혀있을까? 1년간 가장 멋진 날의 감사일기, 가장 참혹했던 날의 감사일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며 뽀내듯 읽어봐도 재밌겠다!

올해 다달이 한 번씩 강의해볼까 혈령하게 스스로에게 제안했다. 대체 그만큼 내게 나눌 것이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 나올 것이고, 말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다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열두 번 기

어이 다 해 내지 않아도 좋다. 단지 이렇게 가볍게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게 맘에 든다.

꿈은 또 다른 꿈으로 이어진다. 여러분도 '에잇' 해 보시길. 작은 실패를 두려워 마시고요. 맛이 쏠쏠합니다.





초등맘,

우리들의 브런치 에듀 제2탄!

강의일시	2013-12-09 ~ 12-16 월요일 오전 10:00 ~ 12:00
강의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203호
강사명	권지현
강의대상	성인
수강인원	10명
준비물	개인컵

초등맘, 우리들의 브런치 에듀 제2탄!!! 개봉박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에듀맘 2탄을 오픈합니다. 1탄에 이어 ‘우리 아이 바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사랑과 이해로 보듬을 수 있는 마음 갖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권지현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깨알 같은 정보!

“이것만 하면 초등은 문제 없다!!!” 초등맘들, 이 좋은 시간 놓치지 마세요!!! ^^

혼자서 불안해 하지 말고, 누구나학교에 나와서 서로 고민을 털어 놓고, 집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자구요!!!

1. 다중지능 그게 뭔가요? / 2. 내 아이 성향과 진로 / 3. 내 아이의 학습 환경 분석하기 / 4. 습관의 힘 / 5. 실천하는 기본 학습

강의를 연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개합니다

아이들과 행복한 공부를 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엄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자기주도력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코칭·진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토론논술·읽기 코칭강좌로 친구들과 주민센터·도서관·학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초등맘, 우리들의 브런치 에듀

글 | 권지현

누구나학교의 강좌를 준비 할 때면 늘 고민이 된다. '어떤 이야기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강사와 수강생의 벽을 허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건 즐거우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를 시작 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한참 고민했다. 그래서 결정한 주제는 「초등맘, 우리들의 브런치 에듀」

오늘은 바로 그 「초등맘, 우리들의 브런치 에듀」가 열리는 날이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실까?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일은 늘 기대되고 설레인다. 아침부터 설레는 맘으로 간식을 주섬주섬 챙겼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제일 좋은 건 음식인 것 같다.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사르르 열린다. 아무 것도 없이 멍송 멍송 이야기를 나누는 것 보다 한결 말랑말랑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오늘 강좌도 브런치 강좌. 간단한 간식과 함께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 한층 가까워지고 마음도 열릴 것이라 기대되었다.

부모가 된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연습의 시간도 없다. 우리는 늘 초짜 부모다. 초등학생 부모도 처음, 중학생 부모도 처음, 고등학생 부모도 처음이다. 인생에 연습은 없다. 그래서 사는 게 더 재미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에 오늘도 좋은 부모들은 고민한다. 내가 과연 좋은 부모인

지... 부모와 학부모 사이에서 간극을 줄이는 일 또한 쉽지 않다. 부모만 할 수도 학부모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둘의 균형을 잘 맞춰서 나가는 일은 어렵기만 하다.

그래서 먼저 초등맘과 소통하고 싶었다. 나도 초등생을 키우는 엄마 이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클거라 생각했다. 좋은 엄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고민의 모양과 색깔은 달라도 초등맘이라는 공통된 고민을 나누기 위해.....

처음은 늘 어색하고 낯설다. 같은 뜻으로 모였지만 서로 낯선 기운에 서먹서먹하다. 이런 어색함을 깨주는 건 강사의 몫이다. 반갑게 맞으며 한두 마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어색함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진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초등맘이라는 공통점 때문일까? 오신 분들은 가까운 이웃을 만난 양 이야기를 나누신다.

먼저 초등생을 둔 엄마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궁금했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화가 나나요?”

“저의 질문에 ‘응’이라고 짧게 대답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화가 나요.”

“제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어떤 때는 책상 밑에 만화책을 두고 읽어요. 제 땀에는 엄마가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속상해요.”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만 주구장창 봅니다. 아이와 눈 맞추고 싶은데 엄마가 이야기할 때도 늘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정말 화가 나요.”

“친구들 하고 놀 때 자기표현을 못해요.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 슬쩍 피하고... 약한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 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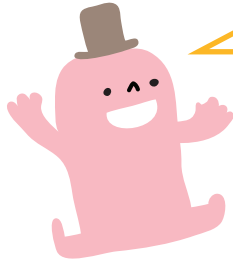
초등생을 키우는 엄마들의 고민은 비슷하다. 하나 둘 꺼내 놓는 이야

기 보따리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어느새 서로가 서로를 도닥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은 다른 누군가가 했던 고민이고 다른 누군가의 고민은 내가 했던 고민이다. 그러기에 서로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들로 치유받고 치유한다.

내가 굳이 여러말 하지 않아도 끼어들지 않아도 서로가 소통의 장을 열어간다. 이것이야말로 누구나학교의 힘이 아닐까? 강사가 교실문을 열어 놓으면 관심있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교실을 이룬다. 그러면 어느새 교실은 사랑채가 되고 까페가 되고 놀이터가 된다. 그 안에서 강사와 수강생이라는 경계는 허물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위로받고 치유한다.

오늘도 새내기 초등맘인 나는 선배 초등맘들께 한 수 배우고 위로받고 도움을 받았다. 다음 누구나학교엔 어떤 교수들을 만나게 될까 궁금하다. 각각의 숨겨진 마을의 달인을 만나는 기쁨이 쏠쏠하다. 다음이 기다려진다.





빙그레 꽃뜨래 :

꼬모티브로 복유럽 코바느질

강의일시	2013-11-29 금요일 오전 10:00 ~ 12:00
강의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204호
강사명	이소영
강의대상	성인 / 어르신
수강인원	5명
준비물	코바늘 (대여가능, 대여비 500원), 어릴 때 사진
재료비	3,000원

이번 누구나학교에서는 작년 <시와 함께하는 목요일>을 함께했던 이소영 선생님과 같이 간단한 글을 쓰면서 뜨개질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빙그레~ 추억을 떠올릴 만한 간단한 수필 정도니 부담 갖지 마시고, 추억에 잠기며 한 코 한 코 바느질해 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본인의 어린시절 사진 한 장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부담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린시절 사진을 보며 우리 모두 함께 글을 쓸거랍니다. 뜨개질에 관한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슬뜨기(코잡기) / 2. 짧은 뜨기 / 3. 긴 뜨기 / 4. 모티브 뜨기

※ 모티브 하나 완성 시간 : 3분~15분

처음 하시는 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5분이면 하나를 뜨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요. 우리 함께 추억에 잠기며 빙그레~ 글도 쓰고 꽃뜨래~ 코바느질도 해 보아요^^

강의를 연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개합니다

<시와 함께하는 목요일> 수업을 함께 했던 이소영입니다. 아이들에게 글쓰기와 논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 첫 뜨개 작품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뒀던 노란 스웨터랍니다.

빙그레 꺾드래,

시와 뜨개질이 함께 했던 수업

글 | 이소영

시와 뜨개질이 함께 하는 수업을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 페이스북 친구들과 블로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덧글로 비밀글로 질문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비교적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 수업을 계획했었다. 이 수업을 준비했던 것은 11월 초. 한 해를 잘 정리하면서 좀 단정하고 화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수업으로 하고 싶었던 거다.

주변을 보면 누군가는 참 일이 잘 풀리는데 누군가는 지독하게도 일이 안 풀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전체를 보면 안 풀리기만 하거나 잘 풀리기만 하는 사람은 없고 혹 그렇다 하더라도 다 각각의 아픔이 있기 마련.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닐까 싶었고, 뜨개질과 시가 그 태도를 정비하는 데에 좋은 도구일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언제 처음 바늘을 잡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첫 스웨터를 뜬 것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는 것은 기억한다. 다이아몬드 무늬와 현란한 짜배기 등 각종 문양으로 꽉 채운 노란색 스웨터였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뜨개질을 시작했던 건 19살까지 내가 무남독녀였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뜨개질을 하시는 할머니 모습을 보았고 그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뜨개옷과 양장옷을 입고 자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고 밤도 하얗게 잠들 무렵까지

하시는 할머니의 뜨개옷 속에는 그 날의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기분 좋아서 옆집 아주머니랑 수다 떠시다가 빠뜨린 코도 있었고, 화를 참느라 너무 뽕뽕 떠서 뽕뽕해진 부분도 있고..... 내 눈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할머니는 그 때 그 때 그걸 정비하면서 가지런한 뜨개옷들을 만들어내셨다. 그리고 시를 본격적으로 접한 건 대학시절. 내가 속했던 학회는 시 창작 학회라 일주일에 한 번씩 시 창작과 함께 합평회가 있었고, 매번 시인들을 정해 시집을 낭송하고 토론하곤 했었다. 그 모임의 서두는 사실 각종 변명으로 시작된다. 미처 써 오지 못한 창작시. 내 강압에 어떤 후배는 시를 써야 하는데 시가 안 써지는 밤이라는 시를 써오는 만큼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 등등 때문에 모임 초반에는 변명도 많았고 포부도 많았다. 하지만 잔잔히 시를 읽고 나누고 있으면 그 어떤 시라도 우리는 행복했고, 사실 잘 쓴 시건 그렇지 않은 시건 심지어 채 써 오지 못한 시건 시 자체보다 그 시를 통해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짜릿하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정리하며 수업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꽃 모티브를 쓰며 비뿔비뿔했던 지난 한 해도 마음으로 정리하고, 그러면서 짓게 되는 빙그레 미소로 꽃처럼 환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랐던 것.

실제 수업은 김승희 시인의 <콩나물의 물음표>라는 시를 함께 낭송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 이 시는 가장 어두우면서도 역동적인 시였다. 콩나물 시루의 콩나물 새싹은 그 먹먹한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견디지만, 그 상황에 대한 물음표를 끊임없이 던지며 몸짓을 한다. 그리고 그 몸짓들이 모여 콩나물이 쑥쑥 자라나면 콩나물 시루를 덮은 검은 보자기가 하늘에 두둥실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콩나물의 힘에 밀려 쫓겨하게 되고 콩나물들에게는 천지개벽할 세상이 열리게 되는 내용. 그리고 더 매력적인 건 그렇게 천지개벽을 맞이한 콩나물들이 서로를 ‘뜨

거운 사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이었다. 물론 수업 시간에는 시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은 하지 않는다. 그냥 편안하게 자신에게 와 닿았던 구절과 그 이유를 나누는데 이런 시간이 참 좋은 건 시 한 편으로 자기도 모르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날 보름달을 띄워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내 기억에 그 날 그 때 함께 했던 우리들은 적어도 ‘뜨거운 사이’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연 혹은 자신의 지난 한 해나 앞으로 올 한 해에 어울리는 색상의 실을 고르고 꽃 모티브 뜨기를 배운다. 초보자의 경우 한두 개 정도의 꽃 모티브만을 뜰 수 있는 시간이라 기본 코스터는 내가 넉넉히 준비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자신이 뜬 꽃을 붙여 컵받침 등의 용품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북아트 작업을 통해 초반에 나누었던 자신의 이야기와 한 해 달력(원래 계획으론)을 담아 책상 앞에 세워둘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로 했다. 실제 작업은 북아트 작업으로 손뜨개품과 자신의 이야기를 적는 데까지 했지만, 단 두 시간에 시와 인생과 그리고 적어도 일 년은 사용할 수 있는 꽃컵받침, 식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북아트 작품을 갖게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좀 바쁘긴 했지만, 비교적 계획대로 수업을 마쳤고, 늘 그랬듯이 계획보다 더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누구나학교를 하교할 수 있었다.

〈빙그레 꽃뜨레〉 수업은 누구나학교에서 개설했던 두 번째 수업. 두 번째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코디네이터 선생님 덕에 전보다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수업은 〈시와 함께 하는 목요일〉라는 수업으로 포부가 넘쳐 12회를 준비했다가 벅차다는 생각에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며 소심하게 ‘10회’로 줄였으나 결국 8회로 마무리한 수업이었다. 그 때도 시 읽기·쓰기·낭송하기·소박한 신체훈련(?)·그림 그리기

등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수업을 했다기보다 수강생들이 수업을 키워주신 것이었다고 기억한다. 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계셔서 수강생들의 상황이나 이런저런 진행상의 조언을 들어서 여러 가지로 넘치는 포부를 조율할 수 있었다는 게 나로서는 참 다행이었다.

2014년에는 넘치는 포부를 잘 곱셈어서 누에고치에서 실을 자아내듯 간결하고 윤이 나는 실크 같은 수업을 하겠다는..... 결국 작년보다 더 야무진 포부를 품으며 이 글을 마친다. 무엇보다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

누구나학교, 성장

누구나학교는 지속적인 도전과 실험이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성장하는 누구나학교를 꿈꾸다

- 088 01. 심포지엄 ‘시민제작 일상학습’
- 096 02. 누구나학교 시민캠페인
- 102 03.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 오프너
- 110 04. 누구나쌤 : 원한다면 누구라도 “쌤”



우리, 누구나학교 스토리북
누구나학교
에서 노자



01.
심포지엄
‘시민제작
일상하스’
런오거텨



시민제작 일상학습:

시민이 만드는 일상의 학습,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

심포지엄 '시민제작 일상학습'

2013년 4월 25일에 진행된 수원시평생학습관 2013 심포지엄 「시민제작 일상학습: 시민이 만드는 일상의 학습,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는 국내에 조금씩 퍼지고 있는 '시민주도 평생학습'을 미래 평생학습의 주요 이슈로 선정하고, 시민참여를 넘어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나가는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모으고 소개하였다. 또한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시민들의 힘에 대한 시대적·이론적 고찰을 통해 앞으로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심포지엄은 지자체 단위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한 심포지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30여명 이상의 관련기관 실무자 및 시민들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또한 하루 행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광역단위 심포지엄으로 변화 발전하여 광주·충북 등 광역단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주도 평생학습'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연달아 개최하였다. 흩어져 있던 이슈를 모아내

고 환기시킴으로서 평생학습 계에 시민주도 평생학습의 바람을 일으키며,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생산한 이슈와 내용들이 수원지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례집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평생학습의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조사 연구하여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본 사례집은 전체 4개 카테고리(①시민강사의 시대,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 ②협동의 시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의 장 ③마을의 시대, 삶의 현장에서 배운다 ④대중지성의 시대, 대학의 경계를 허문다), 총 16개 사례를 모아놓았다. 마을사람들이 만드는 학습부터 지식을 공유하는 온라인 오픈소스 사이트에 이르는 사례까지 다양한 조직과 형식·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현장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를 한 권의 책으로 모아내고 전국의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도시에 배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생학습아카이브와>에 게시함으로써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포지엄 스케치

시민제작 일상학습

인간의 배움에는 경계가 없다

우리 사회의 교육에는 짙은 경계선이 깔려있다. ‘일’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교육’이라는 단어에도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곤 한다는 점에서 배움이라는 건 사실 삶 속에 스며들지 못한 처세술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의 끄트머리에서 주체적인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저마다 다른 옷을 입고 달려 나가고 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있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공통된 고민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재조명하려는 사람들이 수원시평생학습관으로 모여들었다.



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시민의 힘, 가능성을 넘어 일상으로

기조발제를 맡은 정민승 교수는 ‘평생학습이란 사실상 우리의 일상, 사회운동 기관과 제도가 한 덩어리가 되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것이 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제를 꺼냈다. 랭그랑과 들로어가 제시했던 평생교육의 의미를 덧붙이며, 평생교육이란 학습이라는 개념이 일상으로 확장되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개인이 자기 주체를 찾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이 생명을 갖

도록 바꾸어가야 합니다.” 학습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학습의 해방이다. 해방은 지적 능력의 평등을 전제로 모든 인간이 자신의 방식대로 지각방식의 틀을 재편성할 때 찾아온다. 그러므로 우선은 학습자가 스스로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한다. 진정한 학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경계를 허물어야할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만드는 배움과 공유, 똑똑도서관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은 말한다. “똑똑도서관이요?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닌 문화적으로 풍부해지는 곳입니다. 아파트가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건, 주민들이 이웃들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가질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하는 곳이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지으면 됩니다. 이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책을 통해 주민들은 서로를 알아간다. 책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민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똑똑도서관은 책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곳, 일상의 상담이 가능한 도서관이었다.



시니어들의 학습공동체, 지혜로운 학교

지혜로운학교의 이경희 교수는 배우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형이었다.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학습 모델인 영국의 U3A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곳의 시스템은 선순환구조였고, 그 체계가 아름답다고 여겨졌습니다. 이타성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교육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로운 학교는 배움과 나눔을 통해 학습공동체를 구현하는 곳이다.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따르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매일 2~3개씩의 강좌가 열리고 있다.



온라인 경험공유 플랫폼, 위즈돔

위즈돔의 한상엽 대표는 왜 자꾸 빈곤문제가 반복될까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면서 소셜벤처라는 지향점을 갖고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 일시적이거나 수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플랫폼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위즈돔이라는 쇼핑몰에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전시되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함께 배우고, 만들고,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숨겨져 있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사들을 발굴하기도 한다.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람들을 만나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비전을 지켜내는 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신뢰를 형성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도권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변화, 누구나학교

정성원 관장은 누구나학교를 지역과 개인을 변화시키는 솔루션이라고 정의하였다. 평생학습관련기관의 운영 제약 요인들을 지적하면서, 공

급과 소비의 규정을 뒤집어 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누구나학교였다. 명사 1명의 이야기를 들으러오는 300여명을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소비자로 그치게 하지 말고, 각각 가지고 있는 지혜를 끄집어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고민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누구나학교는 앞으로 종횡으로 나아갈 것이다. 개인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시청·경찰청·경희대 학생 등 단위별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하여 학교를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이 두 형태가 지역과 결합되는 것이 목표다. 국적 없는 평생학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실현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실현되어야하므로.



마을 전체가 캠퍼스, 일본 시부야대학

시부야대학의 사교 야스아키 학장은 일상의 학습으로 지역을 바꾸고자 실천하는 곳이 시부야대학이라고 한다. 시부야대학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수업코디네이터. 수업코디네이터들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기획하여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체계이다.

시부야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현장에 나가서 기획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지역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각 수업에 적절한 공간을 배치하는 것도 지역의 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시부야 전체가 곧 시부야대학의 학습 공간이다. 그리고 시부야 시민들은 시부야대학을 통해 지역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다.

점이 모여 도형을 만들 듯 패러다임의 변화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전에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심포지엄이 끝나고 네트워크파티가 이어졌다. 네트워크파티장도 북적이는 것을 보며, 그동안 교육과 학습의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의 제대로 된 구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서 도형을 만들어내듯이 패러다임의 변화 또한 이렇게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네트워크를 이루었을 때 수면으로 떠오른다. 떠먹여주는 교육, 주어지는 대로 행하는 학습이 아니라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그리움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민제작일상학습을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려볼 수 있었다.

글 | 이미진 수원시평생학습관 인턴

02.
누구나 학교
시민캠페인



누구나학교 시민캠페인

‘공원에서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다’

만석공원에서 누구나학교의 평생학습 방식을 경험해보는 ‘누구나학교 시민캠페인’이 열렸다.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배우는 ‘배움터’, 전래놀이와 먹거리를 즐기는 ‘놀이터’, 다채로운 공연과 포토존 등이 있는 ‘응원터’ 등으로 구성되어 누구나학교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움터’에서는 누구나학교 응원단 및 시민들이 ‘만석공원 투어’, ‘애견공원 에티켓’, ‘우쿨렐레 30분만 배우고 연주하기’를 비롯해 집·미술·풍선 등 생활 속 소재로 20여 개의 즉석 강좌가 열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누구나학교를 체험했다.

‘놀이터’에서는 널뛰기·비석치기·협동제기차기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통놀이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콩도넛·킵빙수 등의 먹거리는 무더운 날씨에 시민들의 발을 붙잡는 시간이었다. 오카리나 강사들의 공연이 진행된 ‘응원터’에서는 오카리나 연주와 시민들의 즉석참여로 이루어진 플래시몹 공연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누구나학교 시민캠페인은 수원시평생학습관 누구나학교 응원단과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분과가 공동으로 주최함으로, 지역단체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누구나학교 시민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만석공원에서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감흥의 세계에 바바지다

글 | 최현지

기대치도 않던 곳에서 맘 속에 그려오던 풍경을 만날 수도 있나보다. 만석 공원에서 열린 누구나학교의 풍경이 그랬다. 화창한 하늘 아래 푸른 잔디밭에 펼쳐진 빨간색 파라솔, 그 사이로 아이들부터 학생·어르신까지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이곳저곳 호기심에 차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 별 생각 없이 만석공원을 따라갔던 나는 그 즐거운 풍경에 점차 흥이 나기 시작했다.

평소 나는 배움을 익히는 데에 심각한 태도를 갖춘 한다. 그 덕분에 아직도 기타를 못 배우고 있다. 만석공원 한 귀퉁이에 앉아 우쿨렐레를 뜯고 있는 무리를 만나니 나도 당장 그곳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고 싶다는 즐거운 충동이 생겼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만 있는게 아니라서 우쿨렐레 파라솔은 늘 젊은 학생들로 만석이였다.

‘손채수 님의 집이야기’ 교실에서는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고 아주머니 두 분이 흠뻑 빠져있었다.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해하며 살짝 들어보니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부족은 누군가 쓰던 물건에는 그 사람의 ‘영’이 깃든다고 믿어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집도 역시 자신의 흔적이 깃들

어있는 어떤 존재이다. 이들은 식량과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흔적이 깃든 집을 머리에 지고 함께 이동한다고 했다. 손채수님은 집을 재산 증식 수단이나 값비싼 물질로만 바라보는 세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으셨다고 했다. 연이어 티베트, 이집트의 집 이야기를 듣다보니 십분 만에 세계일주를 한 기분이었다.

이리저리 구경하며 어르신들이 만들어 파시는 슬러쉬도 사먹으며 놀던 차에 미술 잡지 경향아티클의 기자분의 미술 이야기에 참여했다. “최근에 어떤 전시를 보았냐”고 질문하셔서 더듬더듬 이야기를 이어나가다 보니 어느새 내가 신이 나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인지 점차 사람들이 몰려와 어느새 파라솔이 만석이 되었다. 한명 한명에게 물어보니 우리 모두 미술에 흥미가 있고 즐기고는 싶은데 아직 그 방법을 모르는 상황이었다. 자연스레 미술관을 즐기는 팁과 공부 방법·추천 도서 등 기자님의 알짜배기 정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깊게 파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라는 대목에서 깊은 인상과 용기를 받았다.

고즈넉한 토요일 오후 만석공원의 ‘누구나학교’에서 어슬렁거리다 보니 맘 속에서는 다채로운 감흥이 일어났다. 고작 몇 시간 만에 타인의 세계 속으로 깊숙이 빠져있다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일까. 사실 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은 ‘그 사람이 깊이 매료되어 있는 세계’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즐거운 거리를 다른 이에게 전파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매우 이로운 일이다. 그것이 ‘내가 즐거운 것이 나도 즐겁다’라는 지점으로 다다른다면 거기서 문화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또한 만석공원에서 펼쳐진 ‘누구나학교’의 광경은 지역 커뮤니티의

새로운 형태를 내게 보여준 것 같다. 보통 지역 공동체라고 하면 '마을'과 같이 '정겹고 끈끈하며 오래도록 정주하는 공동체'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누구나학교' 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장에서 지식과 즐거움을 매개로 새로운 관계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사람 사이의 연결점이 만들어지며, 궁극적으로 커뮤니티 전체가 '함께 느끼는 공감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지역이 배타적 관성을 벗어나 인간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누구나학교'와 같은 열린 관계망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다.





03.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 오프너



누구나학교가 궁금하고 누구나학교를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가 병뚜껑을 시원하게 열어주듯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누구나학교 오프너'이다. 학습관과 '오프너'들은 누구나학교를 열고 싶은
단체·기관·모임 등에 찾아가서 어디서나 누구나학교가 열릴 수 있도록 '누구나학교 오픈파트'를 연다.
누구나학교의 취지를 공감하고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기관·단체의 연결고리로
어디서나 누구나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공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어디서든 열릴 수 있는
열린 배움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버드내노인복지관 등의 수원지역은 물론
여주시청·고양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누구나학교'를 알리는 활동을 전국단위로 펼쳐나갔다.
꽃씨 옮기듯 누구나학교가 어디서나 열릴 수 있도록 옮겨 갈 것이다.

우리동네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구나학교를 열고 싶다면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후 협의(수원시평생학습관 교육팀 070-4477-6512)
모집대상	누구나학교를 열고 싶은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기관·복지관· 시민사회단체·학교·기업·동아리나 모임 등
운영방법	[누구나학교 참여단체] + [수원시평생학습관] 협력사업



누구나학교 오픈파티 스케치

이상한 학교가 열린다

영통종합복지관 ‘누구나학교 오픈파티’

글 | 최지영

4월 18일. 오전에는 날씨가 그무레하더니 파티가 시작될 오후가 되니 구름이 걷힌다. 오늘은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는 ‘누구나학교’가 학습관을 나와 새로운 장소에서 또 다른 등지를 뜨는 날이다. ‘누구나학교 오픈파티’. 영통에 위치하고 있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첫 번째 파티 장소가 되었다. 오후 1시 30분~3시. 누구나 와서 즐기고 싶다면 행복까지 느껴지는 특별한 파티가 진행된다.

‘누구나학교’는 이름에서 주는 느낌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이기에 학생과 선생님이 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었다가 학생이 되고, 학생이었다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역할의 경계를 넘나드는 열린 배움의 장이다. 우리는 자신의 나이만큼 우리는 경험하고 배웠다. 서로의 다른 경험을 공유한다면, 그리고 여럿이 그 경험과 배움을 나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곳이 바로 배움의 장인 학교이고, 살아있는 삶의 도서관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첫 누구나학교 오픈파티를 열어준 사람은 오늘의 ‘누구나학교 오픈파티’(누구나학교의 지식 나눔을 진행하는 선생님을 친숙한

용어로 부르는 말)은 김소라 님이다. 그녀는 주부로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나누기 좋아하는,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누구나학교 오픈파티이다. 글쓰기·새해설계·영화 함께 보고 나누기·화성 성곽 답사 등 다양한 것들을 누구나학교에서 진행한 바 있다.

영통종합복지관 누구나학교 오픈파티에는 30여 명의 복지관 이용자들이 참여하였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수안스님의 축하인사와 함께 누구나학교 오픈파티가 시작을 알렸다. 수안스님은 영통복지관의 이용자들의 다양한 재능이 누구나학교에서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그 거점으로서 영통복지관이 역할을 해 나갈 것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1시 30분이라는 시간 때문이었을까? 이번 누구나학교에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셨다. 개인적으로 삶의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 기대가 되었다. 첫 활동으로 서로의 어색함을 풀기 위한 간단한 게임을 했다. ‘변신게임’. 서로를 관찰하고 3군데를 변신

▼ 수안스님의 축하 인사말씀



▼ 누구나학교 오픈파티 전경





▲ LETS 기법을 활용한 워크숍 진행

한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마주하여 서로의 달라진 부분을 찾는 활동이었다. 소년 소녀처럼 즐겁게 웃으며 참여하다 보니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진다. 변신게임을 통해 변화·변신은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3가지 키워드로 자기를 소개해 본다. 그 사람의 관심사와 어떤 사람인지 서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누구나학교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고 LETS(Local Energy Training System) 기법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누구나학교 본 파티가 진행된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10가지를 포스트잇에 쓰기 시작했다. 일본어·영어·댄스·웃 잘입기·집정리 노하우·머리 손질·음식 만들기·다이어트 등등 다양한 배우고 싶은 거리들이 모였다. 결과를 보니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알고 싶고, 여성이라면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은 똑같구나 하는 생각에 재미있었다.

오프너는 참가자들이 배우고 싶다고 붙여놓은 포스트 잇의 내용을 전해주었다. 다음으로 배우고 싶은 리스트에 있는 것, 혹은 여기에는 없지만 지식나눔을 해 줄 수 있는 것, 삶의 노하우 10가지를 적기로 했다. 갑자기 한 참가자가 한 숨을 푹~쉬는다.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가르쳐 줄

게 없구나'하고 생각하니 너무 한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분은 멋쟁이 모자에 어떻게 코디를 하셨는지 세련되게 옷을 입고 계신 분이였다. 그래서 '옷을 정말 세련되게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모자와의 코디도 그렇구요'. 같은 테이블의 다른 참가자도 '맞아! 자네는 옷을 참 잘 입는다고 생각했어! 그런 거 좀 알려줘봐~!' 라고 한다. 그 말에 용기가 생겼는지 '그래도 한 때는 패셔니스타였지!' 하면서 활~짝 웃으신다. 그리고 포스트 잇 종이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모자 고르는 방법'이라고 적으신다. 다른 분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배우고 싶은 것 10가지는 다 적어내셨는데,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1가지 적기도 부담스러워하신다. 선생님 그림자는 밝는 것이 아니라고 교육받으신 이유 때문일까,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어려운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 도움이 될까 자격지심이 생기시나보다.

드디어 미니 강의가 열린다. 5개 클래스를 2타임으로 총 10개의 강의를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누군가는 선생님이 되고, 또 학생이 되어 듣고 싶은 강좌를 신청한다. 강좌가 개설되고 듣고 싶은 곳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 강좌신청이 된다.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 가서 10~15분간 미니 강의를 듣는 것이다.

10여분의 짧은 나눔이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핵심적인 삶의 노하우가 살아서 전달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함께 나누고 배우면서 함께 즐겁고 행복했다. 이런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했던 나의 작은 지식들이 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두 번의 선생님 역할을 해주신 이현무 님의 '인생 이모작' 강의를 들었다. 은퇴를 하시고 '인생 이모작'강의를 들으신 후 본인의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그의 열정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자신이 아는 분이 65세에 정년퇴임을 해서 그냥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다 보니 이



▲ 누구나학교 미니 강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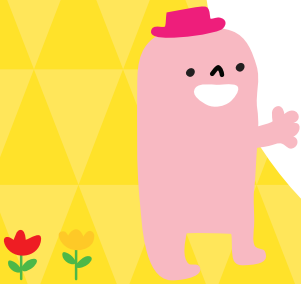
래저래 90세가 되셨다고 한다. 정년퇴임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3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의미없이 보낸 것 같아서 지금에서라도 영어공부를 시작하셨다는 거다. 그 말씀을 듣고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퇴임 이후에도 40여년의 삶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니,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무감을 느끼셨다는 것이다. 이런 누구나학교처럼 서로 나누고 배우고 하는 자리가 참 좋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주셨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누구나학교를 통해 다시금 누구나를 위한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2012년 5월 8일 첫 누구나학교가 열리고 1여 년이 지나 그 학교가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고 있다. 나 역시 누구나학교에서 소박한 나눔을 진

행해 본 바가 있어서 누구나학교의 발전이 기쁘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작된 이 힘찬 출발을 계기로 지역 사회의 행복한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기를 기대해본다.



04.
누구나 사심:
원한다면
누구라도 “사심”



방학이 되면 고등학생들을 위한 <누구나 쌤>이 열린다.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주를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학교밖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소통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강의 준비에 밤을 새워도 재미있다고 말한다.

<누구나 쌤>을 통해 나눔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생들이 자신의 비전을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

고등학생이 가진

무한 가능성의 싹을 발견하다

누구나썸은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싹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각각 싹의 색과 모양이 얼마나 다양한지, 각각의 다름이 얼마나 소중한고 가치로운 것인지, 물을 주고 공을 들인다면 얼마나 크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리고 공들여 키운 싹이 나무가 되어 열매가 열릴 때 그 열매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세 시간을 웃고 떠들다 보면 어느덧 나의 싹이 성큼 자란 것을 느끼게 된다.

요즘 아이들은 무기력하고, 버릇없고, 자기 멋대로라고 한다. 그런데 어찌보면 이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편견이지 않을까? 배려 받고 존중 받은 아이들은 무기력하지도, 버릇없지도, 자기 멋대로도 아니다. 적극적이진 않아도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공손하진 않아도 예의 바르고, 순종적이진 않아도 규칙을 정하고 지켜나간다. 틀에 가두어 놓고 우리만의 잣대로 잣대에 맞는 정답만을 요구하는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삶이란 결국 내 안에 있는 재능을 잘 캐내서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고 가꾸어 남과 함께 나누어 쓰며 사는 게 아닐까?

〈누구나쌤〉에 참여했던 몇몇의 학생들은 누구나학교에서 강의를 열기도 한다. 〈민경이와 함께하는 미술사 여행〉, 〈예비기자 현주랑 함께하는 어린이NIE〉, 〈예비국어쌤과 함께 꺼삐단리 읽고 생각나누기〉 등 아이들은 자신들의 취미나 적성에 맞게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밤새워도 재미있다고 말한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꺼내어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잠깐!!

누구나쌤에선 무엇 하며 놀지?

누구나쌤 시간표를 소개합니다.



첫째날 1교시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진실 혹은 거짓 :

조별로 모여서 진행자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을 맞춰보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본다.

조별로 토의한 내용을 발표해보고, 진행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 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3자의 이야기를 부담 없이 나누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2. 짝궁 인터뷰 & 조원들에게 짝궁 소개(조별 활동) :

인터뷰지에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짝궁에게 인터뷰한다. 인터뷰가 끝나면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조원들에게 자신의 짝궁에 대해 소개해준다.

▶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린 상태에서 인터뷰를 통해 서로를 더 알게 되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짝궁의 소개를 함으로써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3. 세가지 키워드로 소개하기(전체 활동) :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자신을 표현하는 3가지 키워드 단어를 적어 모둠원의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 자신을 인터뷰한 내용중 3가지를 선택해 이름표에 적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4. 인터뷰지 보고 그 사람 맞추기 :

진행자가 설명해주는 인터뷰내용을 듣고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측하여 맞춰본다.

▶ 모둠활동에서 끝이 아니라 서로를 알기 위해 벽에 인터뷰지를 붙이고 인터뷰 내용을 통해 어떤 사람인지 맞춰본다. 첫인상과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첫째날 2교시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기 위해 이제 몸 풀기와 소통을 위한 우리들의 약속은?

1. 종이를 이용한 몸 풀기 운동(전체 활동) :

종이가 움직이는 대로 몸을 똑같이 움직여보면서 몸을 풀어주도록 한다.

▶ 하얀 종이에 입김을 불어 넣는 활동을 통해 종이 생명 얻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종이를 움직여 보고 움직이는 대로 행동을 따라하면서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2. 소통약속 만들기(조별활동) :

포스트잇에 서로가 잘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들을 적어보고 같은 종류의 규칙들을 분류해본다. 모두의 동의 하에 소통약속을 정하고 '누구나쌤'을 하는 동안 잘 지키기로 약속한다.

▶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보고 지키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만든 규칙은 서로를 위해 지킨다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

첫째날 3교시

사과의 전환을 위한 시간

1. 'Change' 단점을 장점으로(사과의 전환) :

자기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을 1가지씩 적어서 내고, 다른 사람이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본다.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고, 이 활동을 통해 단점을 버리고 장점 얻어갈 수 있도록 한다.

ex) 끈기가 부족하다 → 새로운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 단점 투성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사고를 전환함으로써 단점 하나를 버리고 장점 하나가 생겼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과 남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다.

2. 'Human Library(사람책)' 소개 :

Human Library(사람책)에 대해 소개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책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2일차 활동내용을 미리 제시해준다.

▶ 사람이 하나의 책이 되는 활동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통하고 공감하며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과 남의 소중함을 느끼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기른다.

3. 마무리 소감나누기



둘째날 1교시

1. 칭찬합니다 :

벽에 붙어있는 친구들의 인터뷰지에 칭찬하는 글을 적어본다.

▶ 서로 칭찬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자신과 남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을 키운다.

2. 지나가겠습니다 :

양쪽으로 나누어 서 있다가 선생님께서 어떤 명제를 내려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나가겠습니다.”를 외치며 반대쪽으로 지나간다.

ex) 명제 → 나는 이성친구가 있다. / 나는 아침, 점심을 다 먹고 왔다. / 나는 꿈이 있다.

▶ 서먹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상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3. 내 등만 바라봐 :

돌아다니며 서로의 등에 붙은 A4용지에 첫인상을 써준다.

활동이 끝난 후에는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의 첫인상에 대한 발표시간을 갖는다.

ex) 평소에 많이 들었던 말 / 특별히 맘에 드는 말 / 처음 들어보는 말 / 가장 듣기 좋은 말

▶ 처음 가졌던 선입견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아보고 나를 남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통해 나의 다른 모습도 알아보고 서로와 소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둘째날 2교시

1. 그림으로 말해요 :

조별로 한명씩 나와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단어를 각자의 조에 돌아가 소리 내지 않고 그림으로만 설명하여 조원들이 맞추도록 한다. 정답을 맞히면 다른 조원이 또 다른 단어를 들고 그림으로만 설명하는데 이렇게 3가지 단어를 다 맞추면, 이 3가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ex) 3가지 단어 → 미래, 도전, 경험

ex) 3가지 단어를 이용한 문장 → 수많은 경험을 해도 도전을 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 추상적인 단어를 언어가 아닌 그림으로 표현 전달 하는 과정을 통해 조원들끼리 협동심을 기르고 3가지 단어로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

2. 3인의 전문가(동물심리전문가, 헌팅전문가, 곤충요리전문가) :

3명이 조가 되어 한사람씩 동물심리전문가, 헌팅전문가, 곤충요리전문가가 되어본다. 전문가들은 돌아가며 질문을 받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내가 정말 전문가가 된 듯 뻔뻔하게 인터뷰를 해보기로 한다.

ex) 인터뷰 질문 :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한 가지?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한 가지씩

▶ 경험해 보지 않은 직업의 전문가가 되어 봄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고 순발력과 독창성을 기를 수 있다.

둘째날 3교시

1. 'Human Library(사람책)':

먼저 자신의 책 소개 글을 적어보고, 그 책이 다른 친구들에게 대출이 되면 자신의 책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을 갖는다. 대출하고 싶은 책을 선택하여 그 사람의 책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한다.

① 자신의 이야기 쓰기 : 자신이 남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A4용지에 쓴다.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 자신이 일하면서 깨달은 것들, 자신이 잘 아는 분야 어떤 것이어도 좋다.

② 홍보하기 : 사람책은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를 독자들에게 설명한다. 일종의 책을 홍보하는 시간이다.

③ 독자의 모집 : 독자는 사람책을 선택한다.

▶ 서로의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람책의 이야기를 들어 봄으로써 공감하고 소통 할 수 있다. 내가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내가 잘 하는 것을 남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2. '누구나학교' 소개

3. 마무리 소감나누기

네 번째 이야기

누구나학교, 마을

누구나학교와 마을이 만나다.

학습마을 코디네이터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이웃들이 모여 숨겨둔 지혜와

경험의 보따리를 펼쳐 내는

마을 배움터의 이야기를 모았다.

- 121 01.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 128 02.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 138 03.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 148 04. 능실 누구나학습마을
- 158 05. 코디네이터 그들의 이야기



우리, 누구나학교 스토리북
누구나학교
에서 노자





마을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며 배우는 '누구나학습마을'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시민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누구나학교'를 마을로 확장했다.

지식·재능·경험·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 누구나 강의를 열고, 배움의 기회를 얻고 싶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누구나학교'를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하여 아파트 단지, 지역단체 등 마을에서 실현하는 프로젝트인 셈이다.

누구나학습마을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진행되는 3개년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곳 중 4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맺고, 마을의 주인을 만나고 강의를 개설하도록 돕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각 마을에 배치하였다.

학력·나이·직업·자격증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비용의 부담 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누구나학교의 운영원칙에 따라 주민 스스로 마을 안에서 필요한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누구나학습마을은

마을 안에서 이웃과 삶을 소통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학습공동체이다. 주민이 중심이 되고, 이웃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이야기가 꽃피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누구나학습마을은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할 예정이다.

누구나학습마을은 <2013년도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으로

수원시와 경기도 재원으로 운영되며,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함께 합니다.



미.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매탄4동 류명화 코디네이터

「누구나학습마을」 듣기만 해도 정감 가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첫째는 마을에서 맘껏 놀았던 어릴 적 기억 때문이고, 둘째는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풀뿌리 지역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다른 사안에 밀려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코디네이터의 활동을 해 보기로 결심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엔 경로당의 어르신들, 다문화여성 등과 함께한 강좌들이 활기를 띠고 있지요. 노인정 어르신을 대상으로 꽃꽂이·라인댄스 등의 강좌를 열어 마을 어르신들의 재능과 지혜를 끌어내기 위해 눈맞춤하고 있으며, 다문화여성들과 함께 추석에 송편을 빚고 꽃꽂이를 배우는 등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살이의 주인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부녀회장의 떡 만들기, 동네 커피숍에서 배우는 커피 내리기 등 마을 주민들의 재능과 마을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강좌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정한 시간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성과를 내야하는 코디의 역할에 깊숙이 빠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성과에 매몰되면 함께 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일이라는 것이 사람들 속에 스며들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학습마을은 마을사람 누구나 즐거운 학습을 통해 생활을 공유하면서 정감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하기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합니다.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의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이웃사촌

글 | 이은성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 동네이건만, ‘누구나학습마을’처럼 주민들과 학습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뭔가를 배우는데, 그 배우는 법과 환경이 제가 배우던 환경과는 달랐거든요.

저는 이제껏 뭔가를 배우다는 건, 부모님이나 선생님·학원이나 책을 통해서만, 딱딱한 공간에서 펜을 쥔 채로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우연히 참가하게 된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이 이러한 저의 배움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주었네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커피 핸드드립 체험에 참여했었는데요, 태어나 처음으로 내 손으로 직접 커피도 내려보고, 서로가 만든 커피도 함께 마셔보기도 하고, 또 커피에 대한 여러 지식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도해주시는 선생님이 직접 시범도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커피 핸드드립 과정을 처음 접해보는 저 또한 꽤 훌륭한 커피 맛을 내기도 했습니다.

평소 즐겨 마시던 커피와 좀 더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된 점도 좋지만,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의 진정한 묘미는 이웃들과 ‘함

게 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껏 배우고 공부해오던 학생으로서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명 그대로 '누구나' 모여서 뭔가를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고, 더 나아가 같은 동네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에 대해 잘 몰랐던 이웃들을 만나고, 알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나학습마을에 아직 참가하지 않으신 우리 동네 이웃분들도 이 프로그램의 무한한 발전과 번영을 통해 저마다의 특별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이웃과의 소중한 시간을 하루 빨리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일인 다역

학습마을의 슈퍼유먼

글 | 전말연

사람의 인연은 묘한 것이다. 매탄4동 코디네이터와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해 어느덧 지금은 누구나학습마을을 곁에서 지켜보고 지지해 주는 한 사람이 되어 있다.

누구나학습마을의 코디네이터 7주 간의 교육과정을 함께 받게 되는 영광을 누렸다. 나에게 생소한 내용들은 너무 긴장도 되고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였다. 다른 코디님들은 누구나학습마을에 대한 연구과정을 다 마스터하고 오신 분들인지?

나는 주눅들고 도중에 포기하고 싶었지만...담당선생님의 교육 내용 중 주민과 “관계맺기”의 중요성을 강조 하셨기에...이보다 더 많은 사람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아 무식을 용감으로 포장하고 때론 즐겁게 교육을 받았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마을에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소심한 나의 성격으로 다른 사람 앞에 서면 굳어 버렸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누구나학습마을”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했다. 협약식 이후 누구나학습마을은 제 모습을 드러냈다. 프로그램이며, 강사섭외며, 시작의 시점에서 마음만 앞서가지 않고.. 차근

차근 일처리 하는 코디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한 두달 곁에서 배우는 사람으로 지켜보다 꽃꽂이를 주제로 누구나
학습마을 강사로서 마을 어르신·다문화가정·동네주민들 등 새로운 주
민들을 만나게 되었다. 꽃을 꽂는 어르신들의 손이 마음과 다르게 더 예
쁜 꽃, 더 싱싱한 꽃을 원하시면서 누가 더 잘 꽂는지? 시험을 보듯 경쟁
하는 모습에서 소녀의 모습과 향기가 묻어 나왔다. 또 다문화분들은 직
접 꽃을 꽂아보고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이라 서툴고, 나름 신기해하고 완
성된 생의 최초의 작품을 보고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
다. 동네 주민들과의 강의는 말 그대로 편한 수다방이었다.

앞으로 마을에서 때로는 강사로 때로는 학생으로 참여하고, 마을을
열고, 정감있는 기억을 추억으로 공유하는 마을. '누구나학습마을' 이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01



02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 01 02 시민기자가 알려주는 보도자료 쉽게 쓰는 방법
- 03 꽃으로 이야기하는 다문화이야기
- 04 고추장 만들기
- 05 06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여는마당



03



04



0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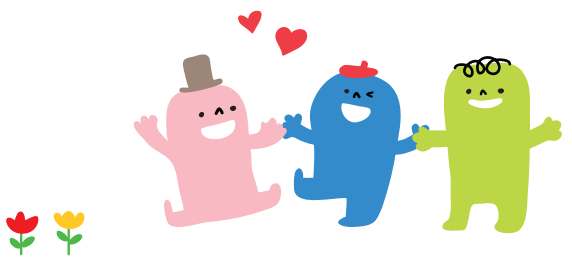


07



08

- 07 부녀회장님이 알려주는 송편만들기
- 08 노세노세 꽃과 놀아보세
- 09 10 종이가방 만들기
- 11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협약식 및 여는마당
- 12 중학생이 알려주는 풍선아트



09



10



11



12



민.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화서1동 신은미 코디네이터

화서1동의 특징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화서신용협동조합·수원환경운동센터·수원 다문화도서관·영광문고회·새마을부녀회 등 9개의 단체가 누구나학습마을 운영위원회로 참여해, 협력기관으로서 누구나학습마을을 함께 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마을의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주민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강좌를 통해 마을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요.

그동안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학습마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여는마당을 개최했고, 사업에 공감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의 여러 리더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아이 머리핀 만들기, 스마트폰 폭넓게 사용하는 법, 전통방식으로 고추장 담그기, 숙지고 댄스동아리와 함께하는 '날 따라 해 봐', 화서 신협과 '어린이 경제교실', 화서사랑 무료 의료검진에 오신 어르신과 함께한 '실버 댄스' 등... 여러 강좌를 통해 화서1동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분들은 화서1동 이웃입니다.

대부분 나는 가르쳐 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며 손사래를 치시다가도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해 줄 수 있다는 분들이 강사로 나서 주십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놓쳐 버린 지난 강좌를 다시 해 달라고도 하시고, 다음번에는 이러저러한 것을 배워보고 싶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나학습마을 강좌를 함께하며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지혜가 숨어 있기도 하고, 돈 주고도 못 배울 경험이 우러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부지런히 공부 해놓은 지식이나 재주를 이웃사람에게 배우며 좋은 이웃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주민센터 비타민!

글 | 권민영

화서1동이 누구나학습마을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근무한 지 1년 정도 되어가면서 느낀 것은 화서1동 주민자치센터가 고등동과 화서1동의 경계가 되는 가장자리에 있고, 바로 옆이 재개발사업 중이라 주민자치센터에 오시는 분이 적고, 저층 주택이 대부분이라 젊은 세대보다는 연세가 있는 주민들이다보니 누구나학습마을이 잘 될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화서1동에 작은 씨앗이 날아와 터를 잡듯 누구나 강사가 되고 누구나 수강생이 되는 이런 형태의 학습이 잘 맞을 것 같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7월 9일, 4개 동 관계자 간담회가 있던 날! 그냥 일반적인 간담회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간담회를 하면서 일반적인 강연회처럼 듣기만 하는 간담회가 아닌 참여해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진행방식을 경험하며 누구나학습마을에 화서1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신은미 코디님이 화서1동으로 출근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분들과 누구나학습마을을 알리고 강좌를 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나학습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많은 도움

이 되었습니다. 양파,오이장아찌 담그기부터 시작해서 우드마커스, 핸드워머 뜨기 등등..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주민자치센터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퀴트 부엉이 만들기 강좌를 열어 강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학습마을이 뭐야?' 하시던 주민들도 이제 사무실로 찾아와 이번 달 강좌를 살펴볼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어떤 강좌가 나올까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화서1동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신은미코디 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내 삶의 터닝포인트

글 | 김정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인 제가 2011년 12월에 급작스럽게 위암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는 생각으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접고 수원 화서1동으로 이사를 오게 된지 딱 1년 되었습니다. 이사 와서 낯설고 무료한 마음에 무조건 화서1동 주민센터로 와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쿨트를 수강하던 중에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추장 담그기', '오이장아찌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 눈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시간이 마땅치 않아 못하고 있다가 '스마트폰 완전정복'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얼핏 간판을 보긴 하였지만 별 관심 없이 지나쳤던 다문화도서관에서 강좌가 열려 다문화도서관에 처음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도서관 치고는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수업을 받아보니 편안하게 느껴졌고,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을 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수업도 유익했고 수업을 통해 다문화도서관을 접해보니 예전 우리도 간호사나 광부들이 독일에 가서 고생했던 것처럼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고, 다문화도서관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1월에는 누구나학습마을에서 뜨개질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작은 솜씨지만 주변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강생으로 참여해서 핸드워머를 같이 만들어 보자 했는데 누구나학습마을 코디선생님의 요청으로 '목도리뜨기 만큼 쉬운 핸드워머'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대바늘을 손에 잡아보니 쉽게 자신이 생기지 않아서 화서시장 뜨개방에 가서 요즘 유행하는 핸드워머도 먼저 만들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먼저 만들어 본 핸드워머를 보고 다들 잘 했다고 해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코 잡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같이하는 수강생들이 재미있게 잘 따라와 주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솜씨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누구나 학습방 우리의 사랑방

글 | 최옥남

여자 아이가 둘이 있는 저희 집에는 온갖 머리끈들과 머리띠가 가득합니다. 가끔은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이 금방 떨어져버려서 못 쓰고 버려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참 아깝고,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리본을 구입하고 만들어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만들어졌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니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딸을 둔 엄마들에게 이런 만드는 비법을 전수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생각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첫 강의! 재료 준비하는 과정이 좀 신경이 쓰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잘 하지 못하는 편이라 강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괜히 한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은 정말 시간 낭비였습니다. 아는 얼굴도 몇분 보여서 긴장이 덜했고 처음 뵙는 분도 계셨지만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며 만들다 보니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다 보니 강의라는 느낌보다 내 친구에게, 내 동생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 편안함이 더 커졌습니다.

하루만에 끝날 줄 알았던 수업이 수강생들의 열정으로 한번 더 하게 되었는데 두번째 강의에서는 저보다 더 멋진 아이디어를 내는 수강생까지 생기게 되어 무척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강의도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마침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이라 ‘트리와 눈사람 만들기’ 수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바느질이 처음이신 분들과 서투신 분들이었지만 내 손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다들 뿌듯해 하시는 얼굴을 보니 정말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엄마와 딸이 함께 수강하신 분이 계셨는데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있다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 것 아닌 재주로 이웃에게 다가가다 보니 여기가 바로 ‘사랑방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남들보다 잘 하는 것, 혹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수강생이 강의자가 되고 강의자가 수강생이 되는 누구나 학습은 이웃의 사랑방이자 힐링의 교실인 것 같습니다.





01

화서동 누구나학습마을

- 01 부녀회장님이 알려주는 고추장 만들기
- 02 목도리뜨기 만큼 쉬운 핸드워머
- 03 숙지고 댄스동아리가 알려주는 날따라해봐
- 04 스마트폰 무작정 따라하기
- 05 양파,오이장아찌 하루만에 먹을 수 있게 만들기



02



03



04



05



06

- 06 화서동 누구나학습마을 여는마당
- 07 화서신협과 함께하는 어린이경제교실
- 08 팔달구응원단장에게 배우는 실버댄스
- 09 에니어그램,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10 우드마크스 핸드폰거치대 만들기



07



08



09



10



03.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조원1동 김지영 코디네이터

조원동시장 한 편에 자리 잡은 '마을을 가꾸는 돈가스 나눔터, 마돈나돈가스'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압화카드 만들기·풍선아트·냅킨 아트·수세미 뜨기 등 다양한 수업을 열고 있지요.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은 마을의 학습공간이 조성되어 조금 더 쉽게 이웃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배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문고·작은도서관 등에서도 이웃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배움의 공동체가 피어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기쁩니다.

사실 처음에는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가 되어 교육을 받고 마을에 배치되었을 때, 설렘과 함께 걱정도 많았어요. 역시나 순탄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활기차게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여주는 주민들과 활기찬 인사를 하지요.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만으로도 코끝 찡한 감동을 느낍니다. 다른 마을보다 우리 조원1동은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지만 한 명의 주민이라도 누구나학습마을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조원1동에 많은 학습공동체가 있어 비록 코디네이터가 없어도 활기찬 마을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쁜 하루를 보낸답니다.



우리는 모두

생활의 달인

글 | 성정아

붉게 물든 낙엽이 한창이었던 따사로운 가을날, 광고산 흙지기에서 흙내음과 함께 만났던 누구나학습마을.. 계절이 변하면서 누구나학습마을과의 인연도 깊어졌습니다. 도예체험에서부터 냅킨아트, 한지공예, 코바늘뜨기, 압화카드 만들기..

강좌의 수만큼 우리 마을에 숨어계시던 강사님을 만났고, 그 열배가 넘는 마을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친구인 귀염둥이 도은이부터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이 작은 마을에 그토록이나 보석 같은 존재들이 숨어있었다니.. 참 놀랍죠?

어설픈 손놀림이 민망하긴 했지만, 그 어설피름까지도 따스하게 덮어주시던 강사님들의 애정 어린 손길과 몰입의 힘을 가르쳐주기라도 할 듯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던 어린 친구들까지.. 어느덧 40대에 접어든 아줌마의 마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주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있었더군요. 까마득히 어린 시절 찢레순과 시영을 따주며 이렇게 먹는 거라고 가르쳐 주

있던 친구들.. 물고기 잡는다고 하루 종일 헤매고 있을 때, PT병으로 어항을 만들어주던 오빠들.. 많은 지식과 삶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던 학교 선생님.. 고등학교시절 무턱대고 올라탔던 버스 안에서 ‘지금이 좋을 때야~ 힘들어도 기운 내!!’ 라고 위로해주시던 아줌마.. 이유도 알 수 없이 징징거리는 아이를 대신 안아주며 편하게 아기 안는 법을 가르쳐 준 할머니.. 아이들 반찬투정에 지쳐갈무렵 맛있는 시금치나물 무치는 법을 전수해 준 앞집언니..

어쩌면 너무 사소해서, 그분들은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쳤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셨겠지만, 전 그걸 배워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걸요.

‘엄마가 어렸을 때 시영이랑 찢레순을 따먹었던다. 찢레순은 달콤하고, 시영은 아주 시었어’

‘손으로 물고기 잡기는 힘드니까, PT병 가지고 와봐!’

‘삶은 속도가 아닌 방향성이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행복할 거야’

‘애구.. 아기를 이렇게 안으면 불편할 텐데..’

‘시금치나물은 오래 데치면 물러서 맛없어요.’

언제 배웠는지도 모르는 기억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남에게 전수해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군요. 막연하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건 한지공예 강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한지공예를 가르쳐주시던 중국교포강사님께 한지공예 자체도 배웠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우리 것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에겐 작은 나눔이, 배우는 사람에겐 화학반응의 촉매제같이 작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고민이 생기더군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줄 수 있을까?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건 뭘까? 흰 눈이 녹고 노란 개나리가 필 즈음이면, 이 고민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을에 만난 누구나학습마을이 겨울과 함께 맞닿나게 숙성되어, 긴 기지개 후 새싹을 돌아내면.. 한 계절만큼의 생각과 마음의 성장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봄엔 저도 누군가의 멋진 강사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칭찬 릴레이

서로 ‘통’ 하였는가~

글 | 정순옥

“마을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며 배우는 누구나학습마을”

‘이웃들과 어울리며’

마을만들기 모토와 일맥상통한다. 마을을 가꾸는 돈가스 니들터인 마돈나 카페는 점심 영업 이후에는 주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달 남짓 이웃들과 작은 어울림을 시작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입니다.”

누구나학습마을에 대해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고, 강좌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마을 안에 누구나 학습장이 들어왔다.

‘누구나 학습을 통한 주민소통’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돈나 커뮤니티 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명료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누구나학습마을이었다.

주민들 속에서 강의를 할 ‘누구나’와 강의를 들을 ‘누구나’를 찾아 만남을 이어주는 사람, 일명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갖추어 꾸미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단어의 뜻에 맞게 다양한 주민들을 조화롭게 잘 갖추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예

쁘게 꾸미는 전문가, 즉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는 마을만들기 위원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주민 가까이 다가가 주민 속에서 어울림을 찾고 있었다. 누구나학습마을 덕분에 또 하나를 배웠다. 주민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난 어쩌면 주민들이 마을만들기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는데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나학습마을을 함께 진행하며 이제는 주민들을 찾아가는 마을만들기를 해야 함을 깨달았다. 누구나학습마을의 가장 큰 역할은, 주민들이 서로의 장점을 알아주고 인정하며 칭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는 ~을 잘해요”

“우리한테도 가르쳐줘”

나도 이러한 칭찬에 못이기는 척 10년 전에 그만 둔 공예 수업을 하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했던 압화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 내내 즐겁고 행복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무런 이해타산 없이 서로 관심사를 공유하는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초등학생부터 누구나 연령제한 없이 진행되는 수업이라는 것이 더욱더 매력적이다. 모든 강좌가 대상연령이 구분 되어 있어 배움에 제한이 있었다. 그런데 누구나 학습은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수업을 처음 해 보았다. 좀 힘들 것이라는 의구심으로 수업을 시작하였지만, 부질없는 고민이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각자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제한적 사고를 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반성할 수 밖에 없었다. 강사로서만이 아니라 수강생으로도 참여하여 보았지만 역시나 똑같이 즐거운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공통 관심사가 같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여 자연스러운 소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 수업마다 새로운 주민들간의 만남도 신선한 즐거움이 되는 것 같다. 거리에서 스쳐가기만 했던 주민들이 만나 인사하고 서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 주고,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것이 바로 누구나학습마을이 추구하는 것이며, 우리 마을만들기에서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곧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자원을 찾고 공유하며 나누는 것, 즉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은 모두 같은 맥락이다. 또한 평생학습시대라는 페러다임에도 걸 맞는 프로젝트이다.

코디네이터가 돌아간 3년 후에는 주민 스스로가 누구나 학습을 이어가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고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마을만들기나 누구나학습마을이나 모두 주인공은 주민이다. 주민 '누구나'를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코디만 예쁘게 해 놓으면, 마을만들기 주체나 코디네이터들이 마을을 떠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누구나학습마을과 마을만들기 모두가 마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주민들 간 '통(通)'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두 단체가 추구하는 것이다. 마을의 모든 '누구나' 와 소통하여 사람들이 웃음을 되찾고 신명나는 마을이 되기를 소망하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어 조원1동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01

조원동 누구나 학습마을

- 01 02 남대추골한마당축제 폐현수막으로 제기만들기
- 03 광고산홍지기와 함께 하는 도예체험
- 04 스마트폰 사용법
- 05 입학카드 만들기
- 06 초초보탁구



02



03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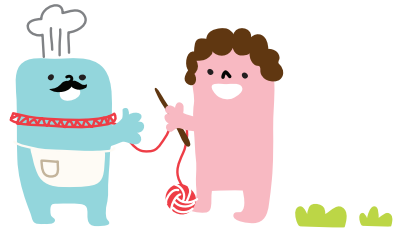


06



07

- 07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협약식 및 여는마당
- 08 09 친환경수세미 뜨기
- 10 11 호박죽 만들기



08



09



10



11



04. **능실** 누구나학습마을

능실마을 김문정 코디네이터

우리 능실마을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매탄4동, 화서1동, 조원1동 세 마을과 달리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능실샘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용시설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며서 만들어 낸 도서관으로 2013년 초에 열었고,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도서관에서 자원활동을 하다 우리 마을 코디네이터를 시작했는데, 사실 교육을 받으며 일을 시작한 몇 달 동안 주민들의 걱정 반 기대 반의 시선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몇 날 며칠을 고심해서 작업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폐강이 되어 너무나 속상하고 참여하는 주민강사분에게 미안할 때도 있지요. 물론 때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벅찬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열리는 당일까지 계속 긴장하다 프로그램이 열리면 주민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즐거움이 생기고... 매일매일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엔 마을을 지나다니다보면 주민들이 먼저 아는 척을 해주시고 인사해 주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능실마을에서는 중학생이 아이들에게 동요를 가르쳐 주고, 고등학생이 태권도를 가르쳐 주고, 평범한 주부가 메이크업을 강의하고, 이웃집 아빠가 기타 연주를 가르쳐주는 등 이웃들의 재능 나눔이 활발합니다. 앞으로 마을의 숨은 자원들을 더 많이 발굴해내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다양한 소재로 강좌를 열도록 할 예정입니다. 삭막한 아파트 문을 열게 하는 교류의 장으로서 누구나학습마을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지요.



소심한 엄마의 대담한 용기

글 | 김소영

저는 호매실동에 이사 온 지 2년 되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는 소심한 엄마랍니다. 이사 온 지 2년이나 되었는데도 초반에 직장을 다녀서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둘째아이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니 그냥 청소나 하며 보내는 오전 시간이 참 아깝더라고요.

그러다가 책 좋아하는 큰 아이랑 도서관에 잠시 들렀는데 자원봉사 좀 해달라는 반가운 소리~ 시간이 어정쩡해서 총 봉사할 시간의 절반밖에 못하기는 하지만 책도 많이 볼 수 있고 큰 아이 작은 아이 책도 여러 권 빌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한테 ‘엄마 그냥 논다~’가 아니라 ‘봉사한다’ 하니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도서관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습마을에 어떤 강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게 되어서 엑셀배우기 프로그램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옛날에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배우던 그런 고리타분한 강의를 아니었어요. 질문도 막 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위주로 하니 무지 재미있더라고요. 세금계산서 작성하기랑 아이들 성적 평균내기 등등 그런 신기한 기능이 있었다니~.

단 아쉬운 점은 제가 노트북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듣고 집에 와서

복습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그래서 드문드문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 댄스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댄스’라는 단어가 들 어간 이상 절대로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으나 목요일 아침마다 회장 님께서 ‘띠링 띠링’ 문자를 자꾸 주셔서 두 번 정도는 “댄스는 좀…….”하 며 넘기다가 뼈죽 거리면서 나가봤었죠.

정말 강목이라 ‘댄스’의 ‘댄’자라도 나오면 줄행랑을 칠 생각으로 나 갔는데 스트레칭을 하더라고요. 뼈거덕 거리면서 이리저리 스트레칭 하 고 나니 좀 개운한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칭이 끝난 후 수업을 했는데 몸 을 움직이기는 하지만 기술을 요한다거나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냥 나의 생각을 표현한다랄까? 조금 다른 방향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여튼 좀 특이한 댄스 수업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그게 다 춤 이 되는……. 강사님도 너무 편하게 재미있게 수업해주시고 그래서 재 미있게 수업을 듣고 몸도 풀고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 친분도 쌓고 즐겁 게 수업할 수 있었어요.

제가 급하게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마무리를 못 지어서 정말 너무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수업 듣는 내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좋 은 프로그램은 널리 알려져 많이 많이 들으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쉽 기도 했습니다.

홍보는 참 열심히 잘 되었는데 참여도가 낮아서 늘 아쉽더라고요. 힘들게 홍보했는데 아직은 많이들 참여해주시는 분이 한정되어서……. 조금 더 자리 잡히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태권소년

마음을 쥘쥘 꿈을 잡다

글 | 이희수

저는 권선구 호매실동 능실마을 15단지에 살고 있고, 호매실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며 남창도장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태권도 품새 선수인 이희수라고 합니다. '마을에 누구나학습마을이라는 곳에서 나의 재능인 태권도를 아이들한테 가르쳐보는걸 해 보지 않을까?' 라는 엄마의 권유로 누구나학습마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재능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나의 미래에 태권도장에서 사범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경험한 것이 나중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학습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간 통제도 잘 되지 않고 말도 잘 듣지 않아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 가르치는 동안 품새 1장과 2장을 하였는데 첫 번째 날은 품새를 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거의 태권체조 영상 보는 일만 하고 게임만 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품새를 반 이상을 하고 태권체조 영상을 보게 되더군요. 솔직히 첫 번째 날보다는 많이 하고 어린 친구들도 잘 따라와 주고 열심히 하였지만 무엇인가 계속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에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같이 오신 부모님들에게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이

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과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에 실망감을 드린 것을 만회하자고 마음 속으로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에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서 나의 재능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한 참기름내 풍기는 살맛나는 우리마을

글 | 이정윤

처음에 우리 단지에 이런 문화 공간이 생긴다고 했을 때 바쁜 생활을 하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과연 참여들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가끔 동네카페 공지 안내를 보고 참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다.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이웃과 소통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동네 놀이터로만 생각했는데 지인을 통해 재능기부 수업 요청이 왔을 때 그저 이웃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 자칫 무심하게 스치듯 지나치던 이웃에게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즐거웠고, 또 소중하게 꼼꼼히 적어가며 동참해주는 그들이 너무도 예쁘게 보였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펴놓고 앞집, 뒷집 모여서 큰 그릇에 나물 넣고 보리밥을 해서 비빔밥을 해먹던 기억이 난다.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먹기도 하고, 작아진 옷들도 서로 돌려가며 입었던. 언제부터인가 앞집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겨우 인사를 나누는 그런 세상이 안타깝기만 했는데 이제는 놀이터에서 마트에서 가끔은 주차장에서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무의미하게 모여 앉아 수다만 하

는게 아니고 손뜨개질도 하고, 인형도 만들고, 컴퓨터도 배우고, 아이들과 책도 보기도 하고, 참 좋은 놀이 공간이 누구나학습마을이 아닌가 싶다.

새해에는 배운 것을 토대로 또 다른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모임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는 자원봉사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하는 능실마을 내 이웃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살맛나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01



02

능실 누구나 학습마을

- 01 고구마로 만들어보는 아이간식만들기
- 02 나만의 셀프메이크업
- 03 내 마음대로 엑셀
- 04 능실마을 가을마당축제
- 05 능실마을 소통 한마당
- 06 수세미 뜨기 시간



03



04



05



06



07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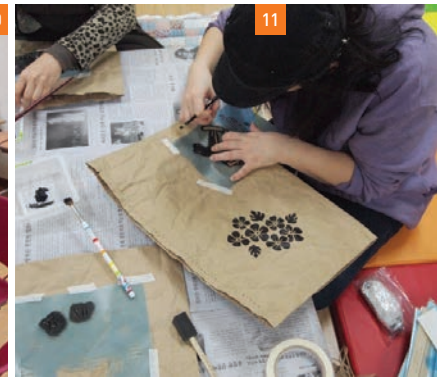
- 07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도서관 활용법 특강
- 08 애들이놀자(4탄) 언니누나가 알려주는 영어동요 율동 배우기
- 09 양말인형공예 눈사람 만들기
- 10 엄마와 딸이 만들어내는 켈트 헤어핀 헤어밴드
- 11 이웃과 함께 생활리폼
- 12 크리스마스이브날 미니컵케이크 만들기
- 13 능실 누구나학습마을 협약식



09



10



11



12



13



05. 코디네이터 그들의 이야기

누구나 학습마을이 마을에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습마을 운영에 관한 실무와 방법론을 배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1차 년도에는 4명의 학습마을 코디네이터와 1명의 자원센터 코디네이터를 선발하여 마을사업에 관한 역할과 자세를 배우고, 마을공동체 탐방을 가는 등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양성된 코디네이터는 각 마을에 배치되어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파악하고 학습관련 지역자원을 연계하였다. 또한 주민의 가진 지식과 재능을 찾아내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움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도록 세심히 돕고 있다.

누구나학습마을의 고통과 애환 그리고 가능성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좌담회

글 | 정성원

2013년 7월부터 누구나학교의 지역관인 '누구나학습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4개구에서 각각 1개의 동을 선정한 후 1명씩의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였고, 또 한 명은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코디네이터들을 후방에서 서포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5명이 지역 주민의 재능과 지혜를 모아 일상의 학습을 조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마을의 일이라는 것이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머릿속에 멋진 사업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이 생각대로 풀리기야 하겠습니까. 특히 단체 활동이나 마을 활동 경험이 전무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자세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5~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벽찬 감동의 기쁨도 느껴봤습니다.

학습을 매개로 마을 활동을 하는 것은 이미 선례도 있지만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저희와 유사한 고민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좌담회를 통해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와 고민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 가능성, 그 희망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단단한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한 사람들



김문정

권선구 능실마을 /
강력한 추진력으로
어려움을 돌파한다



신은미

팔달구 화서1동 /
한번 물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But, 가끔은
물러서기도 함)



류명화

영통구 매탄4동 /
그까이꺼 일단 한번
해 보지 뭐



김지영

장안구 조원1동 /
처음 본 사람도 살가운
태도로 무장해제 시킨다



오은숙

학습마을지원센터 /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느낌 아니까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
살아있는 소통을 꿈꾼다
학습관 비주얼담당

마을 활동 시작 전의 학습활동은 실제 활동에 어끌던 도움을 주었나

Q

정성원

마을에 들어가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준비모임, 학습활동을 했는데 그 배움이 현장 활동에 도움이 좀 되었다. 학습이란 대개 해당 지역의 문제 중심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래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도 들었다.

A

김문정

교육을 처음 받았을 때는 신선함, 걱정, 불안감, 설레임 그런 것이 뒤섞여 있었는데 활동 초기에는 참 힘들었다. 사람들 간의 의식 차이도 있고, 벽을 깨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어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기고 노력하다 보면 그런 벽이 깨진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신은미

제가 학습마을 코디를 지원 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강좌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전 코디 교육을 통해서 강좌를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 내고, 리더를 만들어 내야 하는 커다란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만날 수 있는 주민이 한정되어 있기도 했고,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주민과 그렇지 않고 숨어있는 주민들, 그 숨어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을 만나고, 어떻게 다가 갈수 있는지... 이런 문제는 여전히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류명화

저는 여성단체 관련 활동을 해 왔는데 그런 과거의 활동 영역과 코디의 영역이 유사한 점이 있어서 그동안의 활동들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여기서 받은 교육은 매개가 학습이라는 것에 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제가 명확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활동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5개월 여의 기간 동안 깨진 것 같다. 저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나 기존의 마을 리더가 나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1차적으로 함께 한 사람은 공무원과 마을 리더들이었다. 주민이라고 생각하는 틀이, 순수하

게 숨어 있는 주민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깨어진 느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훈련 과정과 현장의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마을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5개월의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한계, 내가 생각하는 마을, 내가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 그런 부분, 내가 생각하는게 전부라고 했던 생각이 깨졌다는 것, 막연하게 생각했던 마을을 들여다보니깐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좀 더 겸손해져야겠다, 좀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함께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야된다는 생각의 변화가 있다.

초기에 마을 주민이 생각하는 누구나학습마을이란

Q

정성원

5개월의 경과 후 주민의 반응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초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A

류명화

주민들의 반응이요? 이거 뭐야? 뭐하자는 거야? 뭔데? 뭐 그런거다.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쉽게 동의를 하는데,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아직 동의가 잘되지 않는 것 같다. 누구나학습마을은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에 두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저희 마을은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릴레이 강의를 먼저 했는데, ‘사람을 어떻게 모을 건데’, ‘뭐지 이게?’,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근데 누가 내 강의를 들을 건데’ 라는 반응이 있었다.

김문정

초기에는 완전한 무관심이었다.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단체와 주변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여는마당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그 이후 반응들이 조금씩 바뀌었다. 지금도 분류가 나뉜다. 호기심반, 한계반. 한계는 여기까지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누구나학습마을은 가르치고 배우는 경계가 없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배우기만 하려는 사람이 지배적이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한계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내고 배우는 것, 전문적인 사람에게 배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누구나에게 배우는 것에서 그 다음 윗 단계로는 안가나? 그러면 다음 단계

는 전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전문화가 되면 그때는 누구나가 아니라는 점이 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가르칠게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김지영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도 저를 몇 달만 있다가 갈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3년 동안 이 사업을 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3년씩이나 있어요?', 마을을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다니면 '오늘도 오셨어요?' 라는 반응이었다. 저를 일주일에 1~2번 와서 강의만 열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누구나학습마을은 강의 듣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 같다.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이 고민이다. 제가 3년 후에는 떠나고 지역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누구나학습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럼 '이걸 누가 해요? 3년 후에는 없어지겠네.' 하는 반응이 많다. 그래서 강의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현재 운영현황

Q

정성원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곳도 있고 아직 꾸려지지 않은 곳도 있다. 그리고 각 마을의 상황에 따라 운영 현황이 다른데 현재의 상황을 요약해 달라.

A

신은미

운영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참석을 매번 잘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 강좌는 꾸준히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강좌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1회성으로 기획했던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기', '핸드 워머 뜨기' 강좌 같은 경우 주민들의 요구가 더 있어서 3회까지 연장해서 진행한다는 지, '스마트폰' 강좌도 11월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 강좌를 나도 듣고 싶다' 는 요청이 있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다. 그래도 적은 분들이라도 꾸준히 열려달라는 요청으로 강좌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한번은 <숙지고 댄스동아리> 학생들이 춤출 곳이 없어서 여기를 찾아 왔길래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춤을 배우고 싶은 아이나 어른에게 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는게 어떨겠냐고 제안을 했고, 참여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지역 어른들에게도 춤을 가르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서신탁〉에서 지역주민들 위해 ‘어린이 경제교실’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고 지금은 지역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어린이 경제교육을 하고 있다. 대답을 잘하는 어린이들은 선물도 주고 하는데 가끔 주부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리고 보람과 재미가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추장 만드는 강좌를 진행한 것이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강사선생님이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역주민들과 함께 재미있게 즐긴 것 같다.

김지영

조원동은 운영위원회가 아직 꾸러지지 않았다. 너무 서둘지는 않을 생각이다. 지역에 〈마돈나〉라는 돈가스 판매 식당의 공간이 있어서, 매주 수요일은 마돈나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모여서 여기저기 불러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마돈나를 찾는 사람들 또는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결로 마돈나는 이대로만 가면 프로그램이 안정화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본 새마을문고나 새마을부녀회가 자신들의 공간에 맞게 프로그램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새롭게 짜서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코디네이터가 다 알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나는 공간을 제공할테니 우리 기관 홍보도 좀 해 달라’ 사실 이런 의식을 깨는 게 필요하다. 코디네이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산내읍 도서관에서도 강의를 진행되고 있고 탁구강의, 경제교실도 있다.

류명화

매탄동은 이제 무엇인가 달라지는 전환기이다. 지금까지 주민센터가 공사 중이라 그곳에서 강의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곧 공사도 끝이 나니 더 안정된 공간이 확보될 것이기에 공간적으로는 새로운 변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사실 주민센터는 공간 자체의 쾌적함이나 편리함 이런 측면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는 신뢰감 같은 것이 있는 곳이다. 그런 주민센터 장소가 주는 신뢰감이 있는데 주민센터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계속 다른 곳(가정집, 일반 식당, 카페 등등)에서 강좌를 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덜할 것 같다.

다문화 모임은 7월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강좌를 하

고 있는데 다문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뭘 하고 싶은지 이야기 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연계하는 것이 있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경우 거의 매일 화투치는 것 밖에 하시는 게 없어서 활기 넘치는 프로그램을 연결시켰다. 하지만 누구나 배우고 가르친다는, 누구나 강사가 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노인분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다고 하셔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동네에 건강보조식품 약을 파는 사람이 오면 거기에 가신다. 약장사한테 밀려서 누구나 학습마을 프로그램은 방학하자고 하신다.(일동 웃음)

Q

정성원

누구나학습마을은 지역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인데 매탄동의 경우 특정그룹(노인과 다문화)을 대상으로도 진행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설정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A

류명화

처음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집담회를 했을 때, 다문화분들은 본인들이 모임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조직을 한 것이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화투로만 소일하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과 친숙해지는 단계로 프로그램을 운영, 연계하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래 할지는 몰랐다. 다행히 어르신뿐 아니라 강사님도 좋아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당 어르신들은 자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저희 지역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그래서 카페를 알게 되었는데 마침 그 사장님이 커피 관련 강좌를 해 주셔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했고 또 꽃집하시는 분이 거울에 식물 어떻게 관리 하는지 그런 것을 하시겠다고 했다. 또 마을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분의 경우 보도자료 잘 쓰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어서 다양한 분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 고민 중 하나는 육아기에 있는 분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싶는데 안전한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든 한번 찾아서 시도해 볼 생각이다.

초반에 있었던 마을 리더들의 릴레이 강의가 4회까지 진행되고 공간적인 문제로 밀려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릴레이 강의를 하셨던 두 분의 어르신이 스스로 홍보도 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남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사실에 매우 높은 자긍심을 느끼고 계셔서 앞으로도 릴레이 강의는 계속 꾸려갈 계획이다.

김문정

8월 31일 처음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은 총 9명이다. 최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경과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이었고 2014년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주민들에게 더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주민들의 욕구 조사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지금 설문지 초안을 만들어 주셔서 임차인 대표의 협조를 통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저희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강좌를 들어 보니 괜찮더라는 의견이 많지만 아이들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 어른들 프로그램만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도 있다. 왜 일상적인 프로그램만 하게 될까? 매달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프로그램은 아직은 코디네이터 혼자만 짜고 있다. 운영위원회 분들에게 프로그램 짜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냐고 의견을 구하지만 운영위원회 분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조언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반응은 마을에서 열리는데 차 안타고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신다. 저녁에도 많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주민 중 저녁에 재능을 나누실 분을 찾아서 재능 나눔으로 열었는데, 그 포커스가 어딘지 몰라 폐강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엇을 배우고 싶으신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양하게만 열리길 바란다.

누구나 학습마을 참여자들의

생각과 소감

Q

정성원

누구나 학습마을의 참여자라면 수강생과 강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분들의 변화랄까 혹은 그분들의 참여 소감은 어떤지 궁금하다.

A

류명화

일전에 그림책 강의를 했는데 강사와 학생이 딱 구분되는 일반적 패턴의 강좌와는 달리 강사와 수강생, 수강생 간의 소통과 대화가 이뤄지는 이런 모습에 매우 긍정적 반응을 하신 분들이 계셨다.

그리고 최근에 누구나 학습마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고3 학생이 시험 끝나고 엄마따라 커피 수업에 왔다. 그 친구에게 강의 참여한 후기를 적어달

라고 했는데 자기는 늘 언제나 배운다는 것이 어딘가를 가야하고, 누군가 전문 선생이 있어야 하고, 책상에 앉아야 하고, 배우기 위한 조건과 틀 같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는 요지의 소감을 적어서 보냈다.

어르신들은 누구나학습마을이 뭔지 잘 모르신다. 가끔 할머니에게 뭐 잘하냐고 물으면 잘하는 게 없다고 말하시는데, '어르신 국수 잘 삶잖아요.'라고 다시 물으면, '그건 잘하지'라고 말씀하신다. 언젠가 어르신들도 계속하다보면 그중에서 강사도 나오면서 연계가 되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문화 팀은 누구나학습마을을 통해 본인들이 모이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강생인 동시에 그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다문화 요리를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주민센터에 자원봉사하러 왔다가 풍선아트를 잘한다는 중학생에게 누구나학습마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의를 열게 했다. 중학생에게 풍선아트를 배운다는 게 어르신들은 너무 좋았고 학생은 어른들이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것, 그게 참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풍선 만든 걸 참여자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고 말한다. 작은 강좌에서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연수 마을신문기자는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가르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한번 강의를 경험하더니 마을신문기자를 하면서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에피소드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줄 수 있겠다고 말한다.

남경희 선생님 같은 경우 전문강사로 나가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그런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그분은 처음에는 스펙 쌓기 정도로 생각하고 왔다가 경로당 어르신을 만나면서 그 대상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고스톱에 착안하여 고스톱 춤을 개발해서 가르쳐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 하신다. 수강자에 맞는 맞춤형 강의를 하면서 그분 스스로도 더 많은 걸 느끼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다.

김성진 고문은 건강관리에 대해 강좌를 연 이후 더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한금순 고문(주민자치센터)은 내가 산드래미에 30년 산 게 강의가 될 줄 몰랐으며 참 즐거워하신다.

김지영

서로 배우면 나중에는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강의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나 뭐도 할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는데'라고 하시고, '나 후기 쓰라고 하면 여기 안 올 거

야. 나 뭐 시키면 여기 안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잘하시잖아요. 뭐 해 주세요.'라고 말씀 드리면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 다음에는 '이 강의도 할 수 있다. 나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라며 해준다.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오늘 배운 걸 다음에는 배우신 분이 강의를 한번 열어 보시라고 말씀 드리기도 하고, 혼자서 어려우면 배운 사람들이 같이 강의를 열어도 된다고 하면 '그래 같이 하면 하겠다.'는 경우도 있다.

강사선생님은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한다. 전문적인 강의를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강의 경력도 없었던 주민들이 강의를 여는 경우에는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다.', '다른 아이디어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다. 진행한 사람이 능숙하지 못한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반응도 있다. 뜨개질을 배운 참여자가 강사님의 진행이 능숙하지 못하신 걸 보고 다음에는 자기가 강의를 열어 보겠다고 용기를 내시기도 하신다.

신은미

저희가 핸드워머 강좌를 열었는데, 정말 다양하고 새로운 핸드워머가 나왔다. 그게 재미있었다. 만약에 전문강사한테 배웠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저렇게도 할 수 있어'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누가 강사인지 누가 수강생인지 구분이 안 되었다. 서로 서로 배우는 강의가 진행 되는걸 보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

리본공예로 머리핀을 만들었는데 강사가 알려준 방식 외에도 참여자들 스스로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다음에는 우리 이거 말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간·장소·내용이 강의실 안에서 즉석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걸 보며 이것이 누구나학습마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크리스마스 트리, 비즈공예로 팔찌를 만들자, 가죽공예도 있고, 공예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다음 강좌가 이루어지는 게 참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강사님들의 반응도 새로운 제안이 본인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거는 내가 준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네, 서로 배워가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강의를 처음 경험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강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만큼 사전에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고, 강의 안을 짜면서 내용을 모아주는 걸 하게 되면 이런 준비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그 이상으로 좋아하시는 걸 보게 된다. 이런 것이 누구나학습마을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

Q

정성원

학습자나 강사가 서로 배우며 발전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능실마을은 어떤가.

A

김문정

저희 마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강의를 했었는데 그 학생들은 남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처음이니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엄마들이 '좀 열심히 연습하고 기획을 잘 해서 나오지 그랬냐.'는 반응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는 앞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깨우침은 참 소중한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고등학생도 그렇게 말하더라. 나중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경우에는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저도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새삼 느끼게 되었다.

누구나학습마을은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솔루션으로 작동 가능할 것인가

Q

정성원

누구나학습마을이 잘 정착되어서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이다. 짧기는 하지만 그간의 과정을 통해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각자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면 좋겠다.

A

류명화

마을만들기 솔루션이라는 게 어디에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생각한다. 저는 마을에 새로운 변화를 뭔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과,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 부분이라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깊이 있게 경제적인 부분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고, 모여서 흩어지고 모여서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남아서 어떤 형태로든 가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무궁무진하고 개인들의 욕구를 반영 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솔루션으로 촘촘히 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문정

모였다 흠어지고 모였다 흠어지고, 그 과정에 사람이 남는 것 같다. 그러나 마을의 리더는 단 한사람이 아닌 최소 몇 명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몇 사람 중에서는 강사도 있고, 배우는 수강생도 있고, 그리고 그 주체가 코디네이터인 저를 빼고 3사람 정도는 기동처럼 남아 있어야 가능한데, 그 기동처럼 남아 있는 사람도 활동 가로서의 마음의 심지가 굳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김지영

마돈나는 학습을 위한 공간 사용이 가능해서 누구나학습마을이 들어갔는데, 제가 빠진 다음에도 이 공간은 계속해서 유지 된다고 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곳에 하겠다는 리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너의 이야기' 이야기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분들이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이어서 나가지 않을까? 지금 보서는 긍정적이다. 학습이 매개가 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다.

신은미

누구나학습마을이 화서동에 와서 화서동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인사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전 진심으로 듣고 싶다. 마을에 가서 보니 마을 리더 분들이 훌륭하시고 좋은 분들이 참 많은데, 문화라고 할까? 분위기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들, 자기를 부각 시킬 수 있는 사업들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된다. 비단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 생각한다.

학습을 통해 배우는 것의 하나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서로 다양한 것이 존재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걸 기반으로 모든 지역 활동이 이어진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학습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야할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겠고, 어느 한사람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더불어 만들어 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강좌를 열고 강좌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그곳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씩 더 하게 되고 좋은 모델과 방법론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고 애정을 가지려고 한다.

오은숙

코디네이터 혼자 해야 하는 것은 참 부담이 크다. 이 수업에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 모든 수업에 갈 수도 없고, 코디네이터가 주축이 되어서 내가 이 수업을 끌어가야 되는 건 좋은 방향은 아닌데, 소통과 공감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코디네이터가 하지 않고 강사가 주도해서 하는 것, 강사가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해야 하지만 그

것이 쉽지않은 않다. 그래도 다행히 11월부터는 전화해서 ‘이런 수업 해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강의를 열어주고 계신다. 월 10개가 조금 넘는 수준은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는 강의 개설보다 학습자를 더 많이 늘리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올해 목표는 홍보를 더 하자이다. 참가자분들에게 입소문 내달라고 하면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통해 홍보 전단지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기도 한다. 또한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수업 내에서 질적인 부분도 끌어 올릴 계획이다.

김지영

우리 마을에 이런 공간이 있네. 우리 마을 진짜 좋다. 서로 그런 말을 하는 주민들을 보면 기분도 좋고 의욕도 더 생긴다.

김문정

주민자치센터에 터를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과는 달리 저 같은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런 면에서 리더를 세우는 것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설문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게 나오면 방향성이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다.

정성원

제가 결혼할 때 신영복 선생님이 주례를 서 주셨는데 이런 글귀를 붓글씨로 써서 선물로 주셨다.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을에서는 학습마을 기획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 역시 배우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기존 관념이 많이 깨졌다고 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주민과의 관계, 마을활동 속에서 더 많이 변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더 낮은 자세로 그런 것들을 빨리 배우고 체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리라 생각한다.

또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 사실 세상만사는 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그 양극의 중간에 포지셔닝을 해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 극단과 긴장관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희망의 근거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것이 관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5개 여월의 시간 동안 다들 고생이 많았다. 성과라고 내세우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들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반면의 교사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편집후기

우리, 누구나학교에서 놀자

‘어쉴퍼도 괜찮아’

누구나학교를 설명하는 단어는 뭘까? 이야기, 성장, 관계 맺음, 재능공유, 열린 배움터, 눈맞춤, 소소한 배움, 사람 향기 등등이 떠오른다. 만약 이 단어들을 하나로 설명한다면? 그건, ‘사람’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누구나학교의 가장 큰 자산은 통계자료로 보이는 어떤 성과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사람’이다. 프로그램은 끝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누구나학교라는 이 플랫폼은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지만 남는 건 바로 우리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누구나학교에서 좀 놀았던 언니들의 소감 한마디를 들어보자.



이소영: “누구나로 만나서 서로에게 꽃이 되었던 시간. 회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던 건 급하게 뛰어 들어가서만은 아니었다.”



오은숙: “누구나학교 코디네이터로 있으면서 늘 두 가지를 생각한다. 하나는 방법이 메시지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즐거워야 한다는 것. 이번 작업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아주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우리들의 의견은 더뎠

고 세련되지 못했지만 모두의 의견을 모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참으로 의미 있었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업 내내 터지는 내 웃음보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



권지현: “누구나학교! 단어만 들어도 좋아서 입 꼬리가 실룩실룩 한다. 마냥 좋다. 누구나학교 사람들이 좋다. 좋은 사람들의 재미나는 살맛나는 이야기를 책으로 엮는데 불금이면 어떨까, 다크써클이면 어떨까! 이렇게 푹푹푹 착하고 이쁜 책이 나왔다. 색깔도 가슴 떨리는 뽀송한 병아리 색이다. 엄마가 첫아이를 출산하고 바라보는 낭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몽클하다.”



박은미: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날려 버렸던 금요일 저녁이었다. 그녀들과 함께 나누는 누구나학교의 이야기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누구나학교의 누구나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로,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람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누구나학교의 매력이 뭔가요?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누구나학교는 ‘소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꽃피는 ‘어설픈 곳’이에요. 맞아요. 소소한 사람들이죠, 그래요, 어설픈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 안에 들어가야 맛 볼 수 있는 즐거움, 밖에서는 모르는 매력,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매력, 이게 바로 누구나학교의 매력입니다.

우리, 누구나학교에서 같이 놀아볼까요?

우리, 누구나학교에서 놀자

펴낸 날 | 2013년 12월

펴낸 이 | 정성원

펴낸 곳 | 수원시평생학습관

기획 | 누구나학교에서 놀자기획단 권지현·박은미·이소영·오은숙

편집/디자인 | (주)비타민컴

수원시평생학습관

주소 | (442-1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2

전화 | 031.248.9700 팩스 | 031.248.9902

홈페이지 | learning.suwon.go.kr

누구나학교 | nuguna.suwonedu.org

아카이브 | wa.suwonedu.org

페이스북/트위터 | @suwonedu

 수원시평생학습관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